

끝나지 않은 트랙 구조조정

폐지 트랙 확정, 변경 및 신설 트랙 1월 재심의

폐지 확정 트랙

- 문학문화콘텐츠트랙(주·야)
- 글로벌역사트랙(야)
- 제품·서비스디자인트랙(주)
- 지능시스템트랙(주·야)
- 사물인터넷트랙(주·야)
- ICT융합엔터테인먼트트랙(주·야)

지난달 15일 공지된 '2022학년도 1학기 트랙선택 시행 안내'를 통해 폐지 트랙이 발표됐다. 폐지된 트랙은 ▲문학문화콘텐츠트랙(주·야) ▲글로벌역사트랙(야) ▲제품·서비스디자인트랙(주) ▲지능시스템트랙(주·야) ▲사물인터넷트랙(주·야) ▲ICT융합엔터테인먼트트랙(주·야) 등 총 10개로, 학생은 '2022학년도 2학기 트랙선택'부터 해당 트랙을 신청할 수 없다. 폐지되는 트랙에 속한 학생들은 다른 트랙으로의 소속 변경과 기존 트랙 소속 유지를 모두 보장받을 수 있다.

폐지된 트랙 중 ▲글로벌역사트랙(야) ▲제품·서비스디자인트랙(주) ▲지능시스템트랙(야) ▲ICT융합엔터테인먼트트랙(주·야)의 경우, 2년 연속 신입생 혹은 재학생 수를 충족하지 못해 「트랙 신설, 변경, 통합, 폐지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라 트랙 구조조정 대상에 오른 바 있다. 본교는 지난 9월 두 차례에 걸쳐 '트랙 구조조정 관련 학생대표 간담회'를 실시했지만 결국 논의 대상에 오른 모든 트랙의 폐지가 확정됐다.

지난 10월 15일 각 트랙 교수들에게는 '트랙 폐지 확정 및 후속조치에 관한 안내'가 이뤄졌다. 이어 본교는 10월 18일부터 25일까지 각 트랙 교수들에게 폐지된 트랙에 한해 트랙 변경과 신설 및 통합 신청이 가능하다고 전달했다. 하성욱 교무처장은

“궁극적으로 학생에게 보다 좋은 교육과정을 제공해주고자 트랙 변경과 신설 등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밝혔다.

변경 및 신설 신청 트랙

- 변경
- 역사문화큐레이션트랙(주)
 - 역사콘텐츠트랙(주·야)

- 신설
- 역사문화큐레이션트랙(야)
 - UX/UI디자인트랙(주)
 - 시스템반도체트랙(주·야)
 - 지능형제조시스템트랙(주·야)

본교는 트랙 변경 및 신설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단, 해당 트랙 모두 '논의 대상' 일뿐 구체적인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 현재 '변경' 논의 중인 트랙은 글로벌역사트랙(주)과 역사문화콘텐츠트랙(주·야)다. 만약, 변경될 시 각각 역사문화큐레이션트랙(주)과 역사콘텐츠트랙(주·야)으로 바뀔 예정이다. '신설' 논의가 이뤄지는 트랙은 ▲역사문화큐레이션트랙(야) ▲UX/UI디자인트랙(주) ▲시스템반도체트랙(주·야) ▲지능형제조시스템트랙(주·야)이다.

본교는 트랙 변경 및 신설에 대해 10월 29일 기획위원회를 진행했으며, 11월 12일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상황이다. 신청 트랙 변경 및 신설 건은 해당 트랙에 대한 추가적인 교육과정 개선을 완료한 뒤 내년 1월 재심의를 통해 최종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트랙 변경과 신설이 확정될 경우, 학생들은 2022학년도 1학기부터 전공 기초 과목 수강이 가능하다.

학생대표들은 트랙 변경 및 신설이 미정이라는 사실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하성욱 교무처장(좌), 이경택 총학생회장(우)

지난 11월 18일 진행된 '2021학년도 트랙 구조조정 및 후속조치 관련 안내 간담회'에서 이경택(컴공 4) 총학생회장은 “트랙 폐지는 확정됐지만 트랙 변경 및 신설이 미정인 상황이라 학생들은 대안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문석 기획조정처장은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교육과정을 설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창의융합대학 편입 트랙

- 문학문화콘텐츠트랙(주·야)
- 지능시스템트랙(주·야)
- 사물인터넷트랙(주·야)

▲문학문화콘텐츠트랙(주·야) ▲지능시스템트랙(주·야) ▲사물인터넷트랙(주·야)

등 6개 트랙은 신설된 창의융합대학(이하 융합대학)에 포함됨에 따라 폐지가 결정됐다. 융합대학은 ▲상상력인재학부(주) ▲문학문화콘텐츠학과(주·야) ▲AI융합학과(주·야)로 구성돼 있다. 문학문화콘텐츠트랙(주·야)은 문학문화콘텐츠학과로 변경됐으며, 지능시스템트랙(주·야)과 사물인터넷트랙(주·야)은 AI융합학과로 편입됐다.

본교는 트랙이 학과로 변경되는 경우, 트랙 소속 학생이 복학 후 학과 수업을 수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논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하 처장은 “많은 시간이 흐른 시점에서 학과 수업을 듣는 방식을 생각하고 있지만, 시점에 대한 조율이 필요해 당장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본교는 지난 9월 열린 '트랙 구조

조정 관련 학생대표 간담회'에서 트랙 신청 및 변경 기간 최소 2주 전에 트랙 구조조정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지만, 일주일 전인 15일 폐지 트랙을 공지했다. 하 처장은 “2022학년도 2학기부터 트랙이 폐지돼 1학기 트랙 선택에는 기존과 동일한 상황이 적용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 회장은 “확실한 부분에 대해 발 빠른 사전 공지가 있어야 한다. 학생들이 이미 결정된 시간을 급하게 마무리하면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보다 빠른 공지를 당부했다. 조 처장은 “트랙 폐지는 확정이지만 후속 조치를 통해 경쟁력 있는 트랙을 만드는 것이 본교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교육과정 개발이 충분히 이뤄지려면 결정이 지연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혜정 기자 hhj716@hansung.ac.kr

총선거 종료, 마침표 찍고 다음으로



▲제37대 총학생회 선거에서 당선된 기호 2번 'BASE'가 유세하고 있다.

지난 11월 24일부터 25일까지 '2022학년도 학생자치기구 총선거'(이하 총선거)가 실시됐다. 사상 처음 온·오프라인 동시 진행된 이번 총선거에서는 ▲총학생회 ▲총대의원회 ▲학생복지위원회 ▲미래융합사회과학대학 ▲디자인대학 ▲IT공과대학 ▲미래플러스대학 등 7개 중앙기구가 모두 당선됐다.

제37대 총학생회 선거는 3년 만에 경선으로 진행됐다. 개표 결과 기호 2번 'BASE' 선거운동본부(이하 선본)의 지승빈(IT응용 3) 총학생회 후보와 백혜린(스마트 3) 부총학생회장 후보가 1,372표(39.05%)를 득표해 당선됐다. 기호 3번 '심심' 선본은 895표(25.47%), 기호 1번 '근본' 선본은 836표(23.79%)로 그 뒤를 이었다. 선거에는 재적인원 6,229명 중 3,513명(56.39%)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지 당선자는 “준비한 공약들을 지켜나가며 솔선수범하는 총학생회가 되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제38대 총대의원회 선거에서는 '순백'

선본의 김산(사회과학 3) 정의장 후보와 한정민(사회과학 3) 부의장 후보가 찬성 2,222표(91.66%)로 당선됐다. 대의원 27명 중 24명(88.88%)이 투표했다. 김 당선자는 “더 나은 총대의원회, 나아가 발전된 한성대학교 학생자치기구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제39대 학생복지위원회 선거 개표 결과 '하늘' 선본의 조현기(기계 2) 정위원장 후보와 손보연(인문 2) 부위원장 후보가 찬성 2,803표(81.69%)를 얻어 당선됐다. 선거에는 6,229명의 재적인원 중 3,431명(55.08%)이 투표권을 행사했다. 조 당선자는 “앞으로 학생들에게 더욱 필요한 복지를 제공하고 싶다”고 말했다.

제26대 미래융합사회과학대학 학생회 선거 결과, 'BY' 선본이 찬성 655표(79.87%)로 당선됐다. 미래융합사회과학대학 재적인원 1,460명 중 820명(56.16%)이 투표에 참여했다.

제5대 디자인대학 학생회 선거 개표 결

과, '오브제' 선본이 찬성 562표(88.50%)를 득표해 당선됐다. 디자인대학 재적인원 1,185명 중 635명(53.58%)이 표를 행사한 것으로 집계됐다.

제24대 IT공과대학 학생회 선거에서는 '재희' 선본이 찬성 910표(76.98%)로 당선됐다. IT공과대학 재적인원 1,969명 중 1,182명(60.03%)이 투표했다.

제1대 미래플러스대학 학생회 선거 결과, '밀그림' 선본이 찬성 121명(89.62%)를 얻어 당선됐다. 미래플러스대학 재적인원 203명 중 135명(66.50%)이 표를 행사했다.

이번 총선거 기간 동안 트랙·학과(부) 학생회 투표도 병행됐다. 한편 ▲동아리연합회 ▲크리에이티브인문예술대학 ▲상상력인재학부는 선본이 출마하지 않아 선거가 무산됐다. 후보자가 나오지 않은 중앙기구는 내년 3월 재선거를 치를 예정이다.

>> 관련기사 2면

이준혁 기자 junheuk0622@naver.com

2022년 시작할 []라는 각오

김지윤 기자 jizhey@naver.com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겠습니다”



▲제37대 총학생회에 당선된 지승빈 총학생회장(좌)과 백혜린 부총학생회장(우)

제37대 총학생회장 선거에는 'BASE' 선거운동본부(이하 선본)의 지승빈(IT응용 3)과 백혜린(스마트 3)이 각각 총학생회장장과 부총학생회장장으로 당선됐다. BASE의 주요 공약은 ▲소통 ▲복지 ▲제휴 및 취업 ▲장학금 ▲교육 ▲문화 등 6개 분야로 구성됐다.

소통 분야는 ▲온라인 익명 건의함 설치 ▲총학생회 공식 홈페이지 개설 ▲총학생회 공식 카카오톡 채널 개설의 공약으로 이뤄져 있다. '온라인 익명 건의함 설치'는 학생의 건의가 총학생회에 직접 전달된다는 점에서 'Hello Mr. president', '학생 원스톱 지원센터'와 차이가 있다. 지 당선자는 "공식 홈페이지와 카카오톡 채널 개설을 통해 더

많은 학생과 소통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만족스러운 학식당 이용 ▲교내 음료 수거함 설치 ▲교내 문서 형식 MS워드 통일 등은 복지 관련 공약이다.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학식당 메뉴 등을 개선할 예정이다. 백 당선자는 "기존 학식당에서 진행했던 만족도 조사는 자세한 문항이 없어 체계적인 조사가 불가능했다. 항목을 새로 만들어 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내 문서 형식 MS워드 통일'은 교수마다 문서 형식을 다르게 제공해 혼란을 겪는 학생을 위해 마련됐다. 지 당선자는 "교수가 제공하는 문서 형식을 최대한 MS워드로 통일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BASE는 제휴 서비스 및 취업에 대해서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학생의 의견을 반영한 제휴 업체 선정', '진로 및 취업 관련

월간지 배포' 등이 관련 공약이다. 지 당선자는 "기존의 제휴 업체 선정 방식은 학생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장학금 관련 공약은 '장학금 지급일 사전 공지 및 고장', '교육장학금 지원범위 확대' 등이다. 지 당선자는 "장학금 지급일을 고장해 학생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현재 잡플래닛 등 취업 관련 앱을 사용하기 위한 비용은 지원되지 않는다. 이같은 경우에도 교육장학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공약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학업 지원을 위한 'E-Class 배속 수강 허용', '트랙 변경 신청 기간 연장' 등 교육 분야 공약도 있다. 학생이 온라인 강의를 들을 때 학습 속도를 선택 가능하게 할 예정이며, 복학생의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트랙 변경

신청 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다. 백 당선자는 "복학생의 경우 등록금 납부를 완료해도 즉시 재학생으로 인증되지 않는다"며 "변경 기간 이후 복학을 신청한 학생은 트랙을 변경하고자 하더라도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문화 관련 공약에는 '학교 주변 정화 캠페인', '사라진 대학 생활을 위한 행사 다양화' 등이 있다. 백 당선자는 "그동안은 코로나19로 학교 행사의 규모가 작아졌다. 다양한 행사를 기획해 즐거운 대학 생활을 만들고자 한다"고 전했다.

한편 지 당선자는 "투표해 주신 학우들을 실망시키지 않게 준비한 공약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학생들의 불편함에 항상 귀 기울이는 총학생회가 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공정한 기준으로 깨끗함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제38대 총대의원회에 당선된 김산 정의장(좌)과 한정민 부의장(우)

제38대 총대의원회 선거에는 '순백' 선거운동본부(이하 선본)의 김산(사회과학 3)과 한정민(사회과학 3)이 각각 정의장과 부의장으로 당선됐다. 순백의 주요 공약은 ▲대의원 전문화 ▲대의원 간담회 실시 ▲총선거 100% 온라인 실시 ▲후보자 토론회 개최 ▲학기별 학생회 영상감사 ▲학생회칙 일관성 및 객관성 확보 등이다.

'대의원 전문화' 공약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대의원총회와 상임위원회 회의에 앞서 사전 교육을 진행하기 위해 기획됐다.

김 당선자는 "대의원과 상임위원이 학교 시스템이나 학생회칙을 이해하지 못한 채 활동하는 경우가 많다"며 "대의원 전문화를 통해 공부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순백은 '대의원 간담회 실시' 공약으로 대의원 간의 소통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1학기에는 대의원 학교를 2학기에는 대의원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 당선자는 "대의원들은 트랙과 학년이 달라 친밀감을 쌓기 어렵다. 해당 활동을 통해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겠다"고 전했다.

'총선거 100% 온라인 실시'는 학생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공약이며, 참여율과

투표율이 실시간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한 당선자는 "실제로 온라인 투표를 진행한 후 학생들의 투표 참여율이 높아졌다"고 해당 공약의 도입 배경을 밝혔다.

정책토론회와 더불어 후보자 토론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후보자 토론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의한 학교 관련 주제에 대해 후보자의 의견을 내놓는 자리다. 경선일 경우, 후보자들끼리 서로의 공약에 대해 질의응답이 가능하도록 토론 자리가 마련된다.

'학기별 학생회 영상감사'는 학생회비의 사용 출처를 영상으로 공개하는 공약이다. 현재 해당 내용이 나산의 메아리에 업로드 되고 있지만 학생의 관심이 적다는 점에

기인했다. 김 당선자는 "학생들은 학생회비 사용 출처를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영상으로 제작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학생회칙 일관성 및 객관성 확보' 공약은 학생회칙 판례집을 제작함으로써 구체화될 계획이다. 한 당선자는 "과거에 진행됐던 감사와 선거의 판례를 정리할 예정"이라며 "학생회칙이 필요한 경우 판례집을 토대로 혼란을 방지하겠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김 당선자는 "총대의원회는 학생들에게 투명하게 다가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하나부터, 늘 함께 하겠습니다”



▲제39대 학생복지위원회에 당선된 조현기 정위원장(좌)과 손보연 부위원장(우)

제39대 학생복지위원회(이하 학복위) 선거에는 '하늘' 선거운동본부(이하 선본)의 조현기(기계 2)와 손보연(인문 2)이 각각 정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당선됐다. 하늘은 ▲그린 캠퍼스 ▲성북경찰서 합동 순찰대 ▲대면 축제 시 재학생 Zone 확보 ▲토의 및 자격증 교재 무료 배부 ▲한성대 인근 음식점 제휴 및 홍보 ▲대여 물품 실시간 업데이트 ▲대여 물품 확대 등을 주요 공약으로 삼았다.

'그린 캠퍼스'는 교내에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쓰레기를 해결하기 위한 공약이다. 조 당선자는 "교내 카페에서 개인 텀블러를 이용하는 학생에게 스탬프를 적립해줄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일회용 컵

사용량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효과를 설명했다.

전대 학복위가 진행했던 야간 순찰대 사업도 이어갈 예정이다. 손 당선자는 "이전 사업과 달리 성북경찰서 경찰관과 재학생 지원자로 이뤄진 합동 순찰대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하늘은 재학생이 즐길 수 있는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 '대면 축제 시 재학생 Zone 확보' 공약도 준비했다. 조 당선자는 "과거에 진행됐던 축제는 외부인으로 인해 재학생이 즐기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 펜스를 이용해 본교 학생들만의 구역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토의 및 자격증 교재 무료 배부' 공약을

통해 학생의 취업 준비도 지원할 예정이다. 손 당선자는 "대부분의 본교 트랙이 졸업요건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토의 점수를 요구하기 때문에 토의 교재를 우선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성대 인근 음식점 제휴 및 홍보' 공약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학교 주변을 잘 알지 못하는 학우들을 위해 기획됐다. 조 당선자는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행됨에 따라 내년에는 학교를 찾는 학생이 많아질 거라 예상된다. 학교 주변의 음식점과 제휴를 맺어 서비스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대여사업도 시행된다. 하늘은 '대여 물품 실시간 업데이트', '대여 물품 확대' 공약을

통해 보다 폭넓은 지원을 약속했다. 조 당선자는 "기존의 대여 물품에 독서대, 무선 마우스, 노트북 거치대 등을 추가할 예정"이라며 "HSU어플을 통해 실시간 대여 물품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하늘의 추진 예정사업은 ▲잡플래닛 제휴 홍보 ▲의료 플랫폼 제휴 ▲한성대학교 다이어리 제작 및 배부 ▲캡스톤·졸업 전시 홍보 ▲분실물 실시간 업데이트 등이다.

마지막으로 조 당선자는 "공약을 모두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 또한 홍보 활동에 더욱 신경 써 많은 학생의 참여를 독려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상상력교양 축제 성황리에 마무리

지난 11월 8일부터 12일까지 '상상력교양' 축제가 진행됐다. 축제 주간 열린 행사는 ▲글로벌 역량 경진대회 ▲2021 한성대 사피엔스데이 ▲제15회 한성인 프레젠테이션 대회 ▲제4회 상상력교양대학 포럼 ▲제14회 한성대 영상제 등이다. 제15회 한성인 프레젠테이션 대회는 상상관 205호에서 진행됐으나, 나머지 행사는 온라인으로 이뤄졌다.

본 축제는 기존에 있던 5개의 행사에 학생의 참여를 독려하고 상상력교양대학을 홍보하기 위해 기획됐다. 기존 행사는 학부마다 별개로 진행돼, 학생이 일일이

찾아서 참여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상상력교양대학은 올해를 시작으로 매년 축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축제에 참여한 학생에게는 활동 내역에 따라 비교과 포인트 5~100pt가 차등 지급됐으며, 소정의 상품도 함께 제공됐다. 이상혁(상상력교양대학 기초교양학부) 교수는 "대부분의 행사가 비대면으로 진행된 점이 아쉽지만, 이번 축제를 통해 학생들이 지적 호기심과 동기 부여의 원동력을 얻을 수 있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준혁 기자 junheuk0622@naver.com

상상빌리지 동계방중 입주자 모집

지난 29일부터 본교 기숙사 상상빌리지에서 동계방중 입주자를 모집 중이다. 학생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자 시작된 이번 입주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발생한 공실에 따라 상시 모집될 예정이다.

거주 기간은 입주 당일로부터 2월 19일까지다. 재·휴학생과 졸업생은 물론, 2022학년도 신·편입생도 지원 가능하다. 재학생과 신·편입생은 우선선발 대상이며, 휴학생의 경우 2022년 상반기 복학을 앞둔 학생에 한해 신청 받을 예정이다.

입주를 희망하는 학생은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에 본교 생활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합격자 발표 역시 매주 수요일에 이뤄진다. 합격자는 입주 전 건강검진진단서와 PCR 검사 음성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본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진경(행복기숙사 유한회사) 행정실장은 "새로운 입주자들이 들어오는 만큼 동계방중에도 방역에 있어 철저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준혁 기자 junheuk0622@naver.com

hansungnews



한성대신문
카카오톡으로 만나보세요

‘차별의 뒷’에서 빠져나올 기회

거듭 이뤄지는 차별금지법 제정 자유를 제한한다는 의견도 존재 법안 제정 및 인식 개선이 필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 제11조제1항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권리다. 최근 헌법에 명시된 차별방지 조항보다 세밀하고 포괄적인 내용이 담긴 차별금지법의 제정 논의가 촉구되고 있다.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성적 지향성,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등을 이유로 생활 전반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 21대 국회에는 장혜영(정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안’, 이상민(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평등에 관한 법률안’, 권인숙(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등 총 4개의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지난 6월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국민동의청원이 10만 명을 넘어이기도 했지만, 청원 심사 기한인 11월 10일이 다 돼서도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는 2024년 5월 29일까지 청원 심사 기한을 연장했으며, 해당일까지 심사가 완료되지 않는다면 청원은 자동 폐기된다. 심사가 완료되더라도 본회의 심의에 들어가지 못하면 발의안들은 폐기될 예정이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관련 법률개정 및 제도변경과 연관돼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며 거듭 미뤄지고 있다. 그러나 법안의 심사 기한만 연장됐을 뿐, 법안 소위원회는 차별금지법을 상정·심의하지는 않는다. 전문가들은 심사가 이뤄지지 않는 시점에서 언제, 어떻게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홍관표(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면, 먼저 해당 법안을 소위원회 안건으로 상정시키는 일부터 해야 한다. 그 후, 심사를 진행하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을 검토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차별금지법 제정이 미뤄지고 있는 지금, 우리 사회에서 차별의 심각성을 느끼는 이들은 절반 이상이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20년 4월 22일부터 27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0년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이하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8명이 ‘우리 사회의 차별이 심각하다고 생각한다’(82.0%)고 응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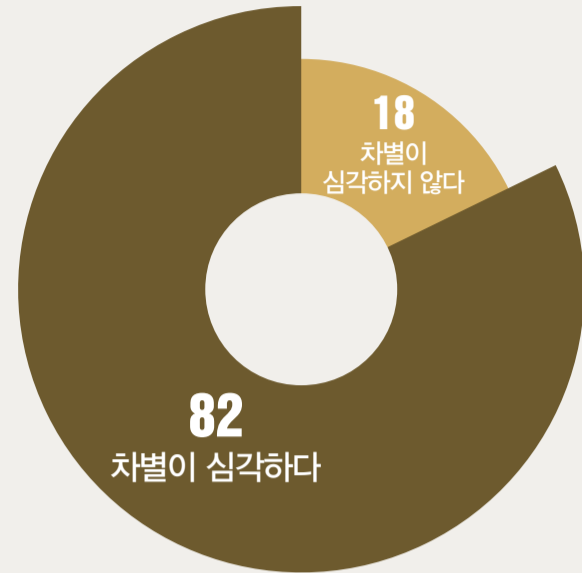
해당 조사에서 360명(36.0%)의 응답자가 ‘고용 형태에 따른 차별’을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차별로 꼽았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의 개별법이 복잡한 차별에 대응하기 한계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증거다. 실제로 피해자는 자신이 당한 차별의 종류에 따라 각각의 차별시정기구에 진정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재희(공주대학교 일반사회교육과) 교수는 “개별법이 이미 시행되고 있지만, 부분적 적용에 불과하다는 한계점이 있다. 사회적 차별을 시정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개별적 차별금지법의 불충분한 부분, 흠결에 해당하는 내용을 메우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다양한 차별 상황을 다루기에 한계가 있는 개별법을 보완해 발의된 법안이 바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다. 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안’ 제10조에 따르면, 기업이 성별 등과 같은 이유로 모집·채용의 기회를 주지 않거나, 제한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39조에는 ‘장애나 특정 신체조건을 가진 자 등이 장애인이나 자 등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근로할 수 있도록’이라는 구절도 명시돼 있다. 장 의원은 “한 사람은 복합적인 정체성을 지니며 살아가기 때문에 실제 차별이 단 하나의 이유로 설명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차별이 발생하는 맥락을 여러 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을 때 그 사람의 경험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며 복합적 차별을 다루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인식조사에서 고용에 따른 차별에 이어 325명(32.5%)의 응답자가 학력·학벌에 따른 차별이 가장 심각하다고 꼽았다. 학벌주의가 고도화된 우리 사회의 모습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결과다. 박천웅(전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학벌주의는 개인의 능력이 아닌 출신 학교의 ‘지위’를 중요하게 여기고 출신 학교에 따라

2020년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단위 : %)



*대상: 전국 성인 남녀 1,000명
*자료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차등적 보상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회 현상’이라며 “사회 속에서 차등적 보상을 두고 펼쳐질 여러 경쟁 단계에서 능력보다 출신 학교만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공정하다고 보기 어렵다. 학벌주의는 현대 사회의 신분제로 고착화된 공산이 크며 이는 사회적 차별이다”라고 전했다.

차별금지법 제정이 기업 차원의 ‘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반박이 제기된다. 차별금지법이 시행되면 학력에 따른 차별이 금지돼 능력을 기준으로 한 인사가 불가능하고 이는 곧 기업 채용의 축소로 이어진다는 주장이다. 전문가들은 기업의 선택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지만, 기업의 선택이 헌법에 수호하는 가치와 충돌하거나 공익 목적에 어긋날 경우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말한다. 즉, 기업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들이 헌법상 절대적으로 보장받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이준일(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은 “기업은 이윤을 최대한화할 수 있는 인재를 선택할 자유와 권리를 가지지만 이때 다른 사람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학력 및 학벌’이 차별금지법에 포함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주장이 잇따른다. 학력은 선천적인 요소가 아니고 개인의 선택과 노력에 따라 성취의 정도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차별금지법에서 규정하는 차별은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차별 행위’다. 학력 등의 조건에 대해 필요 이유를 함께 명시하고 충분히 설명한다면 법안 상의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차별금지법 제정이 학벌주의의 돌피구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존재한다. 이에 대해 정영선(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 사회에 병적으로 확산돼 뿌리내리고 있는 정의롭지 못한 학벌주의 현상을 하루속히 타파해 나가야 한다”며, “그 첫걸음이 차별금지법 제정이라고 본다”고 전했다. 차진아(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학벌주의 자체를 없애긴 어렵지만, 법안과 함께 추가적인 제도 및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사회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차별금지법이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역차별을 우려하는 목소

리도 나온다. 이는 차별적 언행만으로 범법자가 될 수도 있다는 오해에서 비롯된 주장이다. 하지만 차별에 대한 일반적인 조치는 조정 및 시정 권고일 뿐, 형사 처벌의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일상생활의 모든 표현이 제한되는 것도 아니다. 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을 살펴보면 차별이 금지되는 영역은 엄격히 정해져 있다. ‘고용의 과정 혹은 직장에서’,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교육기관에서 교육이나 직업 훈련을 받을 때’, ‘행정서비스 제공이나 이용할 때’ 등이 해당 영역이다.

심지어 헌법상 표현의 자유는 무제한적이지 않다. 헌법 제37조제2항에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결국 차별금지법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닌 인격적인 가치에 위배되는 표현을 금하고자 하는 법안인 것이다.

전문가들은 표현의 자유가 막대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해 차별 금지 적용 범위에서 제외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은 “자신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사람의 기본적 인권을 부정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홍 교수 역시 “동성애 등 성적 지향에 관한 학문적·의학적·종교 교리적 표현은 문제 되지 않는다. 반면, 인격적 가치를 훼손하는 혐오 표현,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거부·배제·배척 등의 태도는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전했다.

결국 입법과 함께 인식 개선의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전언이다. 법안 제정으로 우리 사회의 모든 차별이 사라지지 않겠지만, 차별에 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사회적 토대를 만드는 것이 차별금지법의 핵심이다. 박용철(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차별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적절한 구제수단이 미비하다는 점에서 실효성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인권을 보장하고 사회적 차별 문제를 개선하며 나아가 우리 국가를 유지하고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한 걸음”이라며 법안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임혜은 기자 hyeoun0115@naver.com



▲ 지난 11월 2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서울 시청 앞에서 차별금지법 연내제정을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기자와 함께하는 시사한잔

‘택시 대란’에 발 묶인 사람들

‘호출에 실패했습니다. 다시 택시를 호출하시겠습니까?’ 최근 버스가 끊긴 늦은 시간 택시를 잡으려 할 때 자주 볼 수 있는 택시 호출 어플의 안내 문구다.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되면서 갑작스레 늘어난 심야시간대 택시 수요와 부족한 공급이 맞물리면서 이른바 ‘택시 대란’이 발생했다. 지난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인 11월 1일부터 7일까지 23시에서 4시 사이 택시 평균 영업 건수는 28,972건이다. 이는 10월 시간대별 평균 영업 건수인 16,510건과 비교했을 때 크게 증가한 수치다.

택시 대란의 원인으로는 택시 공급 감소가 지목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수입이 줄어든 기사들이 운전을 그만두면서 택시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11월 심야시간대 택시 운행은 전월 대비 36.9% 증가해 운영되고 있지만,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면 5천 대 이상이 부족한 상황이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의 ‘택시대수 및 운전자 현황’을 보면, 코로나19 사태 전후의 택시 기사 인원 변화가 확연히 드러난다. 2019년 12월 26만 7,189명이었던 택시 기사는 2021년 9월 24만 1,721명으로 감소했다. 특히 동기간 개인 택시 기사가 0.1% 줄어든 데에 비해 법인 택시 기사는 24%나 급감했다.

표면적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수입 저하가 만든

택시 기사수 감소가 택시 공급이 줄어든 이유처럼 보인다. 하지만 기사들이 떠난 실질적 원인은 ‘사납금 제도’의 잔존이라는 것이 업계의 전언이다. 사납금은 법인 택시 기사가 회사에 납부해야 하는 당일 소득의 일부를 의미하는데, 이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불법이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납금은 ‘월 기준 운송 수입금’이라는 이름으로 암암리에 통용되고 있다. 코로나19로 수입이 줄어 사납금 부담이 심화됐다. 김필수(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사납금은 기사들이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한 비용 제공을 보장하지 않은 채 거둬들이기만 하는 제도이기에 문제”라

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월급제를 근간으로 하는 다양한 모델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서울의 한 택시회사가 기본급을 보장하고 운행 실적만큼 성과급을 주는 방식인 ‘성급 월급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사납금 제도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김 교수는 “월급제를 토대로 한 다양한 모델을 만드는 등의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며 “무엇보다 택시 대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을 위해 도움이 되는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 국내에 맞게 변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혜정 기자 hh716@hansung.ac.kr

오는 2022년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이하 대선)'가 실시된다. 이에 '서울권대학언론연합회 20대 대선 후보와의 간담회'가 진행됐으며, 지난 11월 17일 <한성대신문>을 포함한 여러 대학언론은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만났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기본소득 ▲주거 ▲일자리 등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뤄졌다.

김지윤 기자 jizhey@naver.com



사진 제공 : 서울권대학언론연합회

소속 정당

- 더불어민주당

출생

- 1964년 12월 22일

학력

- 중·고등학교 검정고시 합격
-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학사

경력

- 제28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18기 수료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
- 통합민주당 부대변인(전)
- 제19~20대 경기도 성남시장(전)
- 제35대 경기도지사(전)

기회의 테두리 넓혀, 공정한 사회 만들겠다

“다음 세대들이 과연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 ‘희망이 쉽게 싹트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이 후보는 경쟁을 넘어 전쟁이 되어버린 사회 구조를 지적하며 서두를 땀. 그는 최근 화제가 된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이 선풍적 인기를 끈 이유로 ‘하이퍼일리uzion’을 꼽았다. 사회 현실이 그대로 반영됐다는 의미다. 이 후보는 “드라마에서는 참가자들끼리 편을 나눈다. 이는 누군가를 밀어내겠다는 것이다. 서로 전쟁을 치르는 과정에서 누군가는 도태될 수밖에 없다”, “그나마 있는 작은 기회 속에서 경쟁이라도 공정해야 결과를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고자 대선에 출마했다. 이 후보는 “대다수의 사람이 조금 더 공정한 환경에서 인간적으로 대우받고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정치를 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고 경쟁에서 지더라도 도태되지 않는, 새롭게 도전할

기회가 보장되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정과 함께 ‘성장’에 대한 강조도 이어졌다. 그는 경제 성장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하며 “문제의 원천을 없애는 과정이 필요하다. 과거에는 연간 성장률이 7~10%였지만 현재는 많아야 1%가 채 되지 않는다. 기회가 부족한 세상이라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라며 “모두가 기회를 누리고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고 전했다.

이 후보는 경제순환을 강조하며 ‘기본소득’을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다. 작년 5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국민을 위해 지급된 ‘1차 긴급재난지원금’이 기본소득의 일환이었다. 그는 “당시 4·5·6월 매출이 급격히 늘면서 경제가 활성화됐다”고 전했다. 그러나 “2·3·4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선별적으로 지급돼 경제 효과가 미비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1월 15일에 발표된 국제금융협회의 ‘세계부채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2

분기 기준 세계 37개국의 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우리나라가 가장 높았다. 국가의 가계부채 비율이 높다는 것은 소비가 줄어들고 경기 침체가 더 악화된다 것을 의미한다. 이 후보는 “가계부채비율이 높는데 국가가 지원하는 금액이 너무 적다”고 말했다.

반면 국가의 복지 지출은 현저히 낮은 수치를 기록 중이다. 지난 2월 발표된 국회예산정책처의 ‘OECD 주요국의 공공사회복지지출 현황’에 따르면, 2019년 한국의 국내총생산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율이 12.2%로 38개국 중 35위를 차지했다. 그는 “우리나라 경제 규모는 선진국인데, 복지지출규모는 후진국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고부담·고복지 사회로 나아가야 경제가 성장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고부담·고복지의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증세가 필요하다. 보편 지급 방식의 기본소득을 도입하려면 전 국민을 상대로 일정 금액을 지급해야 해 기존의 세금 재원은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는 “증세 과정

“
억울한 사람도
억울한 지역도
없도록 하는게
공정한 사회다
”

에서 고액납세자가 혜택에 배제되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하는데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탄소세’다. 탄소세는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해 석유·석탄 등 화석 에너지 사용량에 따라 기업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이 후보는 “유럽의 경우 탄소 배출 1t당 보통 5만 원 정도를 부과한다. 우리나라는 평균 1만 원 정도 부과하고 있는데, 5만 원씩 걸으면 약 30조 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탄소세를 부과해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말이다.

그는 탄소세 부과 자체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만약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탄소부과세가 현저히 낮아진다면, 수출 시 차액만큼 추가 지출이 생긴다. 경쟁력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 후보는 “장기적으로 탄소세를 부과하지 않으면 기업과 산업이 망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당장 탄소세를 부과하면 물가가 오르고 원자재 가격이 오른다는 단점이 있다. 그는 “탄소제로 사회를 지향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 과정에서 탄소세를 대책없이 부과한다면 국민이 고통 받을테니, 기본소득으로 그 간극을 메우겠다는 입장이다.

주거 분야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이 후보는 “기존 정부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 수요 측면을 억제했지만 결과가 좋지 않았다. 사회초년생에게 평생 집을 못 구할지도 모른다는 열광감·불안감을 만들어 낸 결과에 대해 분명 책임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전했다.

올해 11월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청년 주거정책의 현황과 개선과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청년 가구의 자가점유율은 2020년 기준 16.1%로 일반 가구의 자가점유율의 3분의 1조차 미치지 못했다. 그는 “공공 임대주택을 저렴한 가격으로 청년에게 다량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충분히 품격있게 살 수 있는 고품질의, 적절한 임대료의 공공 주택을 많이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공급을 대대적으로 늘리는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일자리 문제의 원인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힘의 균형이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중소기업이 열심히 기술을 개발해 놓으면 큰 회사가 뺏어간다.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5~10년 걸리는 사례가 허다한 것이 현실”이라며 “중소기업에 단결권을 부여하고 사회적으로 보호해 힘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 “결과적으로 안정적인 생업의 기반이 되고 선호할 만한 민간 일자리가 마련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지역 불균형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주요 기관을 지방에 재배치하는 등의 방안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그는 “수도권의 경우 인구 과밀화로 폭발 위험에 놓여있는 반면, 지방은 인구 감소로 소멸의 위기에 처해있다”고 우려를 표했으며, “SOC투자나 재정 배분, 교육기관 배치, 정부의 공공기관 배치 등에서 지방을 우선할 시, 인센티브를 제시해야 한다. 국토가 장기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는 길이자 국가 전체 차원에서 바람직할 뿐만 아니라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전했다.

*SOC투자 : Social Overhead Capital의 약자로 사회에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자본



사진 제공 : 서울권대학언론연합회

▲패널과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오는 2022년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이하 대선)가 실시된다. 이에 '서울권대학언론연합회 20대 대선 후보와의 간담회'가 진행됐으며, 지난 2일 <한성대신문>을 포함한 여러 대학언론은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새로운물결(가칭) 김동연 대선 후보를 만났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일자리 ▲주거 ▲교육 등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뤄졌다.

김기현 기자 kimjihun30@gmail.com

소속 정당

• 새로운물결(가칭)

출생

• 1957년 1월 28일

학력

- 국제대학(현 서경대학교) 법학 학사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 미시간대학교 대학원 정책학 석·박사

경력

- 제6회 입법고시 합격
- 제26회 행정고시 합격
- 제15대 아주대학교 총장(전)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전)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석좌교수(전)



사진 : 조정은 기자

새 물결 타고 대한민국 흐름 바꾸겠다

김 후보는 「경제유류」 서문으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지금 이 나라는 털끝 하나 잘못되지 않은 것이 없다. 나라가 망하고 나서야 이것을 고칠 것이냐'라고 경고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조선은 약 한 세기 뒤 멸망했다. 그는 작금의 대한민국에 '신(新)경제유류'가 필요하며, 개혁과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실천에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후보는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개혁을 통해 청년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할 수 있는 기회, 공부할 수 있는 기회, 장사할 수 있는 기회, 창업할 수 있는 기회, 사랑할 수 있는 기회, 결혼할 수 있는 기회 등이 더 많은 기회"라고 설명했다.

청년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득권 공화국에서 '기회 공화국'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지난 40년 동안 대한민국은 승자독식 구조에 의해 기득권 카르텔이 형성됐다"며, "서로 싸우는 것 같지만 결국 주고받으면서 권력을 분점했다"고 지적했다. 기회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고른 기회의 분배도 이야기했다. 그는 현재 청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기회'며, 나아가 '더욱 고른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 후보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관련해 "임금은 노동의 가격이다. 임금이 급격하게 오르면 노동의 수요가 떨어지고, 고용 조정과 고용 감소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꼬집기도 했다.

한편 일자리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를 강조했다. 김 후보는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은 이제까지 추격 경제였다. 한마디로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가 선진국의 현재"라고 말했다. 과거 대한민국의 경제 패러다임을 지적한 김 후보는 크게 두 가지 결함을 설명하며 개혁의 필요성을 이야기했다.

“ 새로운 인물과 새로운 정책이 강물을 제대로 흐르게 만든다 ”

첫 번째 결함은 '우리나라가 표적이 됐다'는 점이다. 그는 "추격 경제의 가장 좋은 전략은 IT 산업 등 기술 사이클이 짧은 산업이다", "대표적으로 중국과 인도 등이 추격 경제 전략을 활용해 우리나라를 따라오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추격 경제로는 다른 선진국을 추월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대한민국 경제 규모나 현실은 더 이상 따라할 선진국이 없다"는 점을 두 번째 결함으로 지목했다. 이어 그는 "대한민국 스스로 문제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 그것이 일자리 문제 해결의 본질"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규제 개혁으로 '창직'을 장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의 직업 수는 2만 개가 넘고 미국은 3만 개가 넘는다. 대한민국은 1만 개를 조금 넘는 수준이다"라며, 직업의 수를 늘려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어 "정부의 역할은 일자리를 만드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동산 문제의 핵심으로는 ▲공급 ▲투기 억제 ▲국가균형발전을 꼽았다. 김 후보는 토지임대부' 공공 분양과 임대주택으로 저렴한 분양과 임대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공공부지의 공급 확대',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공급 확대', '양도소득세 다주택자 중과에 대한 일부 유예를 통한 매

물 마련' 등의 공급 대책을 주장했다. 공공주택을 빠르게 공급하겠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그는 "공공주택을 공급하는데 8년에서 10년 정도가 걸린다. 4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방법을 제시할 것"이라고 전했으며, "1가구 1주택자에 한해서는 대출 및 세금의 대폭적인 규제 완화를 하겠다"고 밝혔다.

두 번째 핵심으로 꼽은 '투기 억제'에 대해서는 "가구당 주택 수에 따라서 확실한 차이가 있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무주택자나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대로 "다주택자에 한해서는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국가균형발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수도권 울인 구조' 혁파를 제시한 김 후보는 "수도권 주택의 수요는 전국을 넘어 미래와 해외에서도 온다"며 지역 균형 발전을 언급했다.

그의 교육개혁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그는 "대학 교육의 목적 중 하나는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이라고 믿는다", "총장 시절, 수능 성적을 가지고 학생을 뽑고 싶지 않았

다"며, 수능 시험이 자격 시험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공립대학의 추첨제 도입도 이야기하며 "단순 랜덤 추첨이라고 보다는 성적이나 학교의 자율성이 보장된 상황에서의 일정 비율을 추첨으로 뽑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전했다. 이어 사립대학 운영에는 자율성을 부여했으면 좋겠다면서 "입학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 학교에 책무성을 맡기고 불공정한 상황이 생기면 강한 제제가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청년에게는 공교육이 무엇을 제공해야 하는냐'는 질문에 "대학 진학률을 낮춰야 한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대학에 진학하지 않아도 좋다. 대신 언제든 필요하거나 원할 때 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전했다. 나아가 '갭이어'를 예로 들며 "청년을 위해 1년 정도 자기 개발에 시간을 쏟을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 교육의 문제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찾는 시도와 도전을 하지 않는 것"이라며, "대학에 다니지 않는 청년에게도 기회를 주겠다"고 전했다.

한편 외교와 안보에 대한 질의도 진행됐다. 김 후보는 '안보에서는 미국, 경제에서는 중국에 높은 의존도를 보이는 대한민국이 어떻게 균형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냐'는 질문에 "균형 외교는 미국과 중국 가운데 있다는 뜻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그는 "미국은 대한민국의 유일한 동맹국이며 안보를 포함한 운영 공동체다. 중국은 제1의 경제파트너다. 동맹국은 동맹국답게, 경제 공동체는 경제 공동체답게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한일 관계도 언급했다. 그는 "미·중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한일관계"라면서 "감성적으로 처리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결코 우리에게 유리하지 않다", "빠른 시간 내에 정상화 혹은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전했다.

*토지임대부 : 건물과 땅을 모두 분양하는 기존 분양주택과 달리 토지는 시행사가 입주자에게 임대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

**갭이어(Gap Year) :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가기 전, 건문을 넓히고 진로 탐색을 위한 체험을 하는 1년여의 유예기.



사진 : 조정은 기자

▲간담회에 참석한 기자가 김동연 후보에게 교육 분야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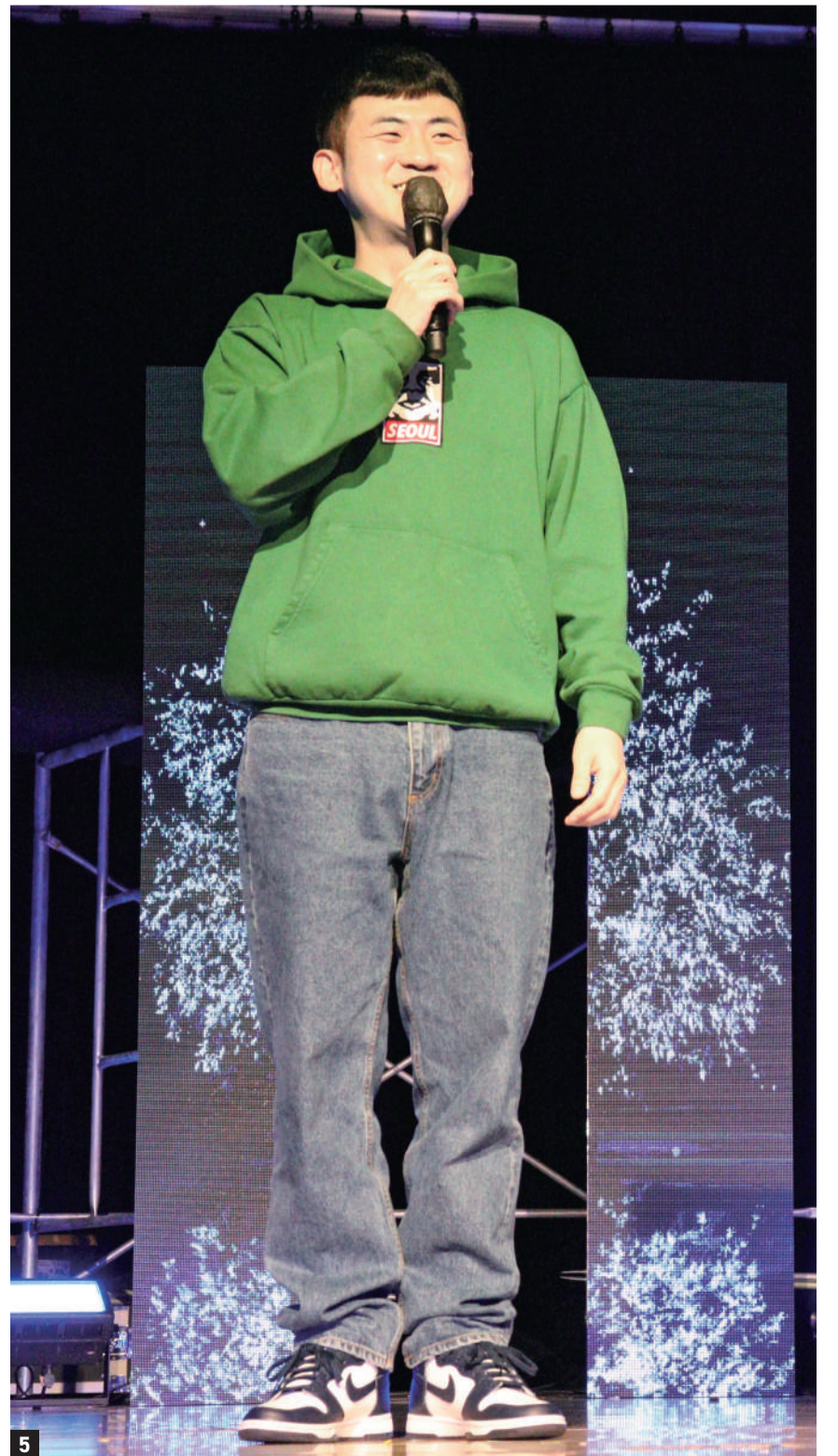
어느 때보다 빛난



11월의 대동제는 다양한 행사가 모여 마치 선물 꾸러미와 같았다. 진행을 맡은 하량은 순발력 있고 뛰어난 MC로 활약했다. 학교를 방문해 자리를 빛낸 김민수(패션 11)를 비롯한 동문들을 시작으로 대동제의 서막이 열렸다. 상상부기 가요제 결승 무대는 쟁쟁한 실력자들로 채워졌으며, 개교 50주년을 기념해 개최된 학사복 공모전 패션쇼에서는 3팀의 시제품이 공개됐다. 가수 '편치'의 초청 공연으로 분위기는 정점으로 향했고 2021년 가을의 대동제는 그 어느 때보다 빛나며 막을 내렸다.

조정은 기자 cje0406@naver.com
 한혜정 기자 hhj716@hansung.ac.kr
 김지윤 기자 jzhey@naver.com
 임혜은 기자 hyeeun0115@naver.com

- 1 학사복 공모전 패션쇼에서 후보 1번은 '랑데부' 시제품을 선보였다.
- 2 본교 공식 홍보대사 '하량'이 대동제의 시작을 알렸다.
- 3 가수 '편치'가 초청 공연을 펼쳤다.
- 4 상상부기 가요제의 금상 수상자 유빈(IT응용 4), 정태구(산업경영 4) 학우가 열창했다.
- 5 유튜브 크리에이터 '피식대학 김민수'가 대동제 동문 초청 특강에서 강연했다.





가을날 우리의 순간



침묵이 흘렀던 학교가 학우들의 웃음소리로 가득찼다. 2년 만에 재개된 오프라인 축제는 이틀간 학내 이곳저곳에서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로 제공했다. 스트레스를 한방에 날려줄 사격게임부터 추억이 새록새록 돌아오는 오락실 게임까지. 지난 2년간 숨죽여 지내던 학우들이 활기차게 날아오른 순간을 생생하게 담아냈다.

조정은 기자 cje0406@naver.com
한혜정 기자 hhj716@hansung.ac.kr

- 6 학우들이 상상관 앞 잔디광장 부스에서 펌프 게임에 참여했다.
- 7 스피드 터치 게임에 참여한 많은 학우들이 즐거워했다.
- 8 2년 만에 진행된 대면 행사로 신이 난 학우들이 카메라를 향해 포즈를 취했다.
- 9 II공과대학 학생회는 드라마 '오징어게임' 속 캐릭터로 분장해 학우들에게 큰 재미를 줬다.
- 10 총학생회가 주최한 '한성대게임'으로 상상관 지하가 온통 떠들썩했다.
- 11 디자인대학 학생회는 생생한 귀신 분장을 선보였다.
- 12 야외 풋살장 앞에 설치된 '바다랜드 웰컴투방방'을 타고 동심으로 돌아갔다.



제36회 한성문학상

소설 부문

수 상 | 김연정(인문 4)
심 사 | 김성달(한국소설가협회) 소설가
삼 화 | 이다혜(CT 4)

시 부문

수 상 | 조윤식(서양화 5) 최현아(CT 4)
심 사 | 강호정(크리에이티브인문학부, 시인) 교수
삼 화 | 이수린(CT 2)

소설 부문 당선작

새 신발

김연정

동 동 동. 나는 잔뜩 부은 눈을 차마 뜨지 못하고, 오른쪽 팔만 간신히 이불 밖으로 내밀어 소리의 원흉을 찾았다. 손바닥으로 애꿎은 바닥만 두어 번 치고 나서야 스마트폰을 잡을 수 있었다. “아이씨...” 나는 분명 지금 처음 들었는데 벌써 세 번째 알람이 울리고 있었다. 세 번째 알람은 8시 10분이었다. 더 자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시간이었다. 일어나기 위해 허리를 일으키다가 엉덩이는 떼지 못한 채 잠시 벽에 머리통을 기댔다. 여전히 부은 눈은 떠지지 않았다. 눈을 감고 벽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집중했다. 그릇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온다. ‘오늘 아침밥은 어제 남은 된장찌개겠지.’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린다. 동생이 방에서 나오는 소리이다. 동생의 발소리가 작게 몇 번 울리며 떨어지더니 금세 동생과 엄마가 다투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보니, 오늘 용돈 날이구나!” 동생은 아직 초등학생이다. 엄마는 초등학생 용돈은 한 달에 오만 원, 그 이상은 안 된단다. 나도 중학생이 되어야야 십만 원을 받았고, 3학년이 된 지금은 고등학교 준비를 열심히 하려고 동생 몰래 오만 원을 더 받는다. 동생은 올해로 6학년이 되었다. 몇 달만 참으면 될 것을, 이상하게도 요즘 들어 용돈을 더 달라고 그렇게 떼를 쓴다. 생전 용돈에 대해 적다 많다 말도 없는 녀석이 아침마다 저러고 있다. 나는 동생의 짜증스러운 목소리에 미간이 꾸겨지는 것을 느끼고, 간신히 벽에 붙은 머리통을 떼어내어 학교 갈 준비를 시작했다.

“다녀오겠습니다.” 나는 현관문을 반쯤 열고선 신발을 신으며 말했다. “그래, 이거 챙겨가고 김주혁, 너는 용돈 막 쓸 생각하지 말어.” 엄마는 우리에게 흰 봉투를 쥐어주며 말했다. “내 마음이야!” 동생은 흰 봉투를 낚아채곤 문을 잡고 있는 나를 밀더니 밖으로 뛰어났다. 나는 흰 봉투를 가방에 넣으면서 동생을 따라갔다. “몇 달만 참으면 돼. 중학생이 되면 더 주실 거야.” 나는 먼저 가는 동생의 얼굴 옆에 고개를 내밀고 말했다. “아직 세 달이나 남았잖아. 돈 모자란단 말이야...” 동생이 고개를 아래로 떨구더니 말끝을 흐리며 말했다. 나는 동생을 잠시 쳐다보다가 반짝거리는 동생의 눈을 보고선 고개를 거두었다. 이후로 별 의미 없는 잡담만 나누며 걸었다. 사거리 모퉁이를 돌고선 동생은 누군가를 향하여 뒤도 안 돌아보고 뛰어가 버렸다. 아마 친구인 모양이다. 그 친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브랜드 의류를 걸치고 있었다. M 브랜드 모자, A 브랜드 반팔에 G 브랜드 신발까지. 친구는 동생보다 키도 덩치도 작았지만, 그의 몸을 치장하고 있는 것들 때문인지 자연스럽게 친구에게 시선이 향했다. 동생이 왜 그렇게 용돈을 더 달라고 떼를 썼는지 알 것 같았다. ‘아직 6학년밖에 안된 것들이...’ 혼자 생각하곤 학교로 발길을 재촉했다.

교문에 들어서자 몇몇 아이들과 선생님이 나란히 서 있는 게 보였다. 누구는 넥타이가 없고, 누구는 후드티를 입고 있고, 아 지금 또 반바지를 입은 친구가 선생님에게 걸렸다. 나는 눈이 마주친 선생님을 향하여 고개를 끄덕거렸다. 선생님은 역시 수민이는 바르다느니, 오늘도 열심히 공부하느니 듣기 좋은 말을 내뱉으며 웃으셨다. 왠지 모를 부담스러움을 느껴 나도 멋쩍게 미소를 띠곤 유유히 그곳을 지나쳤다. 일층에는 신발장이 있다. 나는 내 사물함 앞에 멈춰 서서 조금은 어떻게 변한 하얀 운동화를 벗었다. 이 운동화도 벌써 삼 년을 신었다. 그리고 뱀새가 날까 숨을 참고 신발장에 열린 넣어버렸다. ‘용돈으로 신발이 나 새로 사야지 원.’ 손을 두 번 털고선 계단으로 향했다. 3학년 교실은 4층이다. 반에 거의 다 와 갈수록 호흡은 점점 거빠진다. 왜 3학년 반을 제일 높은 층에 두어야만 했을까. 같이 학혀거리며 올라가는 친구들도 웬지 같은 생각을 할 것만 같다. 4층에 올라서서 오른 쪽 두 번째에 있는 교실 뒷문으로 다가갔다. 교실 뒷문 손잡이를 잡고 오른쪽으로 밀었다. 나는 골장 가장 안 쪽 세 번째 자리로 걸어나와 앉았다. “김수민, 웬일이야. 오늘은 빨리 왔네? 물론 종치기 5분 전이지만.” 옆자리

에 앉은 지훈이가 비아냥대며 말했다. 지훈이는 아침에 입고 온 조끼는 어디 갔는지 와이셔츠만 입고선 길게 내려온 머리카락 사이로 눈을 동그랗게 뜨며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지훈이는 3학년이 되면서 친해진 친구이다. 지훈이는 워낙에 밝고 운동도 잘해서 항상 친구들이 많았다. 나도 작년까지 아는 사이는 아니었지만, 지훈이의 유명세에 이런 저런 소문을 들은 적이 있었다. 평소엔 장난끼도 많고 잘 웃는 아이라고 들었다. 다만, 가끔 과하게 화를 내거나 험한 말을 하여 교무실을 들락거렸다고, 그래서인지 나도 교무실에서 지훈이를 마주친 적도 있었다. 그래도 결국 3학년이 되었고 그런 일 없이 나름 공부도 하는 모양이다. 그러니까 나 같이 평범한 애랑도 친하게 지내겠지라는 생각이 들었다. “수민이 왔네!” 아영이가 내 앞 의자에 앉으며 말했다. 아영이는 작년에도 같은 반이었던 친구다. 갈색 빛이 감돌며 머리까지 내려오는 생머리와 눈썹이 살짝 보이는 길이의 앞머리, 어느 정도 차오른 볼살과 살짝 내려간 눈썹이 귀여운 친구이다. “과, 송아영도 내가 지각 안 하니까 신기해하잖아.” 지훈이가 키득거리며 말했다. “적당히 해라!” 나는 괜히 지훈이의 오른쪽 팔뚝을 손으로 밀며 말했다. “수민이 근데 우리 이제 헤어지겠다. 아쉬워.” 아영이의 눈썹리를 조금 더 내리며 말했다. “왜?” 내가 물었다. “오늘 자리 바꾼다고 했잖아. 그것도 기억 못 하나!” 지훈이가 말했다. 지훈이의 말이 끝나자마자 선생님이 앞문을 열고 들어왔다. 어수선하게 서 있던 아이들은 제 자리를 찾아 앉기 시작했다. 선생님이 교탁 앞에 바로 서자 반장이 일어나 “자렷, 경례.”를 외친다. 선생님은 시시콜콜한 얘기를 몇 마디 던지곤, 자리 뽑기를 시작하자고 말씀하셨다. 이내 반장이 앞에 나와 칠판에 책상 배치도를 그리고 자리마다 숫자를 적는다. 선생님은 자리를 바꿀 때마다 쓰시던 뽑기 통을 조금 흔드시더니 “1분단부터 줄 서서 한 장씩 뽑아라.”라고 말했다. 나는 자리를 뽑고 원래 자리에 돌아와 다시 앉았다. 칠판에 적힌 나의 자리는 4분단 맨 뒷자리였다. 그리고 차례대로 다른 분단 아이들도 자리를 뽑았다. “김수민 나랑 짝꿍 못한다고 울진 마라.” 지훈이가 능청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근데 김수민 짝꿍 도둑년이네.” 지훈이가 눈으로 어딘가를 흘리며 작게 말했다. 칠판에는 ‘김수민, 박화정’이 적혀있었다. “자, 그럼 이제 칠판에 적힌 대로 자리를 이동하세요.” 선생님이 말했다. 나는 지훈이에게 왜 박화정이 도둑년인지 물어보려 했지만 금세 뒤섞이는 아이들 속에서 지훈이와 떨어졌다.

1교시가 끝났다. 역사 선생님 목소리가 워낙 나긋나긋해서인지 쉬는 시간이 되었지만, 교실이 조용하다. “수민아, 너무 졸리다. 나 122쪽 졸린 것만 보여줄 수 있어?” 우연히 또 내 앞자리에 앉은 아영이가 하품을 하며 말했다. 아영이는 뒤를 돌은 채로 내 책상 위에서 밑줄을 그었다. 아영이의 길게 내려온 속눈썹이 조금 부럽다는 생각을 했다. 아영이와 이번에도 가까이 앉게 된 것은 정말 다행이었다. 짝꿍에게는 아침에 자리를 바꾸고 인사를 건네려 했지만, 벽이라도 있는 듯 절대 내 쪽을 쳐다보질 않아서 포기했다. 사실 2학기가 넘어서고 있지만, 박화정과 얘기를 나누는 적은 없었다. 그동안은 자리도 멀었고, 항상 혼자 있었고, 조용하고 또, 음 아무튼 친해지기 어려웠다. 작년까진 나름 평범하게 지냈던 걸로 아는데 3학년이 되고선 말을 하거나 친구랑 있는 걸 본 적이 없다. 그리고 보니, 아영이랑은 인사는 하고 지냈던 것 같았는데 이젠 모르는 사이 같이 군다. 나는 옆드려 있는 박화정을 확인하고, 공책을 꺼내 글자를 써서 아영이 쪽으로 밀었다. ‘아영아, 너 근데 박화정이라 친하지 않았어?’ 내가 쓰자마자 아영이가 인상을 쓰며 나를 쳐다봤다. “무슨 소리야. 하나도 안 친해.” 아영이가 속삭이며 화를 냈다. ‘작년에는 인사도 하고 얘기도 했던 것 같아서.’ 나는 다시 한번 공책을 글자를 썼다. ‘작년에는 그랬는데, 박화정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갑자기 다들 무시하더라고. 그래서 나도 이제 인사 안 해.’ 아영이가 내 글자 아래에 답했다. 나는 갑자기 박화정이 조금 안쓰

러워졌다. 무슨 일을 했는지 몰라도 교실에서 혼자 있는 것은 외로울 것이다. 뜬금없는 동정으로 박화정 쪽을 바라보았지만, 박화정은 여전히 옆드려있었다. 그리고 이내 일어나 다음 수업 준비를 했다.

나는 아영이와 얘기를 더 나누다가 수업 종이 치고 나서야 사물함을 열어 국어책을 찾았다. 그런데 국어책이 없었다. 생각해보니 어제 집에 가져가 놓고 그대로 두고 온 것 같았다. 아침에 용돈 봉투를 넣으며 가방을 열었을 때도 국어책이 있진 않았다. 나는 사물함을 닫고선 자리에 다시 앉았다. 다소 난감했다. 인사도 안 하는 짝꿍에게 책을 보여 달라는 말을 첫 마디로 나눌 줄은 몰랐다. 침을 몇 번을 삼키고, 속으로 ‘지금, 그래 지금’이라는 다짐을 몇 번 한 후에야 박화정에게 말을 걸 수 있었다. “어, 화정아 혹시 책 같이 볼 수 있을까? 내가 책을 안 가져와서.” 박화정은 미동 없이 책을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조금 창피했고, 조금 기분이 나빴다. 대답도 안 할 줄은 몰랐다. 바로 옆에서 말했는데 못 들었을 리는 없었다. 나는 빈 책상이 눈치가 보여 책상 서랍에서 공책을 한 권 꺼내서 올려두었다. 나는 박화정 쪽을 흘렸다. 그러곤 박화정이 올려둔 때 탄 봉제 필통을 보며 괜히 심술 어린 생각을 했다. ‘필통 좀 바꾸지, 자기 물건에 애착이랑도 있나. 돈이 없나. 책은 좀 같이 보면 좀 낫나.’ 입을 삐죽거리며 속으로 악의에 가득 찬 빈 험담을 읊으며 공책을 펼쳤다. 마침 아영이와 끄적거렸던 부분이 펼쳐졌다. 그때 책상을 넘어오는 박화정의 책을 발견했다. 마침 선생님이 교체 수업을 시작하던 참이었다. 나는 순간 놀라 공책을 확 덮어버렸다. ‘뺏을까?’ 아니, 공책을 금방 덮어버려 내용을 볼 새는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보니 내가 책을 보여 달라고 부탁할 땐, 박화정이 책에 정리를 하고 있던 중이었다. 괜히 미안한 마음에 ‘공부를 열심히 하느라 필통도 안 바꿨나 보네.’라며 길었던 필통 토론을 끝냈다. 그대로 박화정에게 책을 보여줘서 고맙단말 한 마디도 못 꺼낸 채로 국어 시간은 지나갔다.

똑같은 체육복에 각양각색의 신발을 신은 반 아이들 우르르 운동장으로 걸어나간다. 나는 아영이의 하얀 신발과 내 누런 신발을 번갈아 가며 보았다. 같은 체육복을 입고 있는데도 아영이 옆에 있는 내가 위축되는 기분이었다. 문득 비싸고 뽀얀 신발들의 향연에 비슷한 누런 신발이 보였다. 조금 위로를 받는 기분으로 신발의 주인을 확인했다. 박화정이었다. 다시 한번 새 운동화를 사야겠거니 다짐했다. 운동장에 도착하자 아이들은 4명 종대로 줄 맞추어 자리에 섰다. 체육 선생님이 하품을 하며 팔자걸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 선생님은 항상 기운이 없으시다. 특히, 오전 수업일 때 더 그렇다. 목소리만 찌렁찌렁하시다.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체육 선생님이 외치는 구호에 따라 다들 이리저리 몸을 움직인다. 준비운동이 끝나니 우리 쪽으로 공을 두 개 던져준다. “자유 시간이다.” 선생님이 알아서 하라는 듯 주머니에 손을 넣으시며 말했다. 솔직히 나는 종이 앉아 있다 보니 피구라도 하고 싶었지만, 이미 아이들은 끼리끼리 팔짱을 끼고 운동장 계단에 앉기 시작했다. 남자애들은 대부분 축구공 하나를 들쳐서 운동장을 가로질러 달려 나갔다. 하는 수 없이 아영이와 운동장 가장자리를 걸으면서 수다를 떨었다. 체육 선생님이 가장 기운 넘치는 시간은 퇴근 시간이라느니, 오늘 급식 메뉴는 무엇이 나온느니 하는 말들이 오갔다. 그렇게 세 바퀴쯤 돌고 있을 때, 이제 막 계단에 앉는 박화정이 보였다. 그리 길지 않은 운동장 계단에 박화정만 툭 떨어져 앉아있었다. ‘화정아, 왜 혼자 앉아있어?’ 책을 보여줘서인지 똑같이 누런 신발을 신어서인지 나는 괜히 박화정이 신경 쓰였다. 마침 힘들다고 하는 아영이의 말을 듣고 우리도 계단으로 향했다. 물론 아이들이 앉아있는 쪽으로 향했다. 박화정의 앞을 지나가며 슬쩍 그쪽을 쳐다봤다. 박화정의 얼굴은 약간 경직되어 있었다. 나는 그것이 원래 그 아이의 표정인지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이내 체육 선생님의 목소

리가 들려왔고, 우리는 다시 교실로 돌아갔다.

교실에선 오자마자 늘어져 앉아서 입을 벌리고 부채질을 하는 아이들 몇몇과 또다시 팔짱을 끼고 화장실을 향하는 몇몇, 그리고 다음 수업이 체육인 친구가 빌려준 체육복을 받으러 교실로 찾아와 재촉하는 풍경이 펼쳐졌다. 매점에 가는 몇몇도 있었는데 때마침 아영이가 매점에 가고 나를 불러 세워 나 역시 그 대열의 한 명이 될 참이었다. 나는 목이 말랐고, 아침에 받아 이미 미지근해진 우유는 마시고 싶지 않았다. 지갑을 챙기기 위해 책상 왼쪽 고리에 걸려있는 가방을 책상 위로 올리고 지퍼를 잡아당겼다. 나는 어두운 가방을 확 열어젖혔고, 그 속에 들어있던 나의 분홍색 반지갑을 꺼내었다. 지퍼를 다시 반쯤 잠그던 와중, 무언가 떠올랐다. 내 용돈 봉투가 왜 안 보이지? 나는 다시 지퍼를 열어 가방을 살살이 뒤졌다. “수민아, 지갑 아직도 못 찾았어? 빨리 갔다 와야 해.” 아영이가 말했다. 나도 쉬는 시간이 길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가방 안의 모든 것들을 꺼내어 뒤질 때까지 나의 흰 봉투는 보이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 목이 마르지 않았다. 나는 서서 책상 위의 가방을 양손으로 쥔 채로 멈춰다. 식은땀이 흘렀고, 나는 말했다. “돈이 없어졌어...”

결국, 매점은 가지 못했고, 나는 전혀 집중되지 않는 수업 시간을 보내고 있다. 아까 전, 돈이 없어졌다. 내 말을 들은 아영이는 큰 목소리로 ‘뭐? 돈이 없어졌다? 얼마?’라고 외쳤다. 반 아이들의 이목은 순식간에 나에게로 집중되었다. 나는 여전히 같은 자세로 가방 안만 쳐다보고 있었다. ‘십오만 원. 흰 봉투에 들어있던 십오만 원이 없어졌어.’ 그리고 나지막이 말했다. 내 주변으로 금세 아이들이 몰려왔다. 조금 멀찍이 서서 수군대는 소리도 들렸다. 아영이는 금히 내 책상 아래, 반 앞 복도 등을 살피었다. 막, 교실에 들어온 지훈이는 반의 어수선함을 느끼고 나에게 다가왔다. ‘뭐야, 반 분위기가 왜 이래. 무슨 일 있어?’ 얼떨떨한 표정으로 지훈이 말했다. “수민이 돈, 십오만 원이 없어졌다.” 아영이 말했다. 나는 그제 듣고만 있었을 뿐이었다. 지훈이는 당황해하더니 순간 말을 멈추고 나에게 다가왔다. “김수민, 네 돈 말이야. 재가 가져간 거 아니야?” 지훈이가 내 귀에 대고 작게 말했다. 나는 내내 보고 있던 가방 안에서 지훈이로 그리고 나서 짝꿍에게로 시선을 옮겼다. 교실은 여전히 어수선했지만, 나의 세상은 순간 매우 어둡고 조용해졌다. ‘도둑년’ 아침에 말했던 지훈이의 목소리가 머릿속에 울렸다. 오만가지의 생각이 머리를 가득 메웠다. 지훈이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는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둑년이라는 목소리의 울림은 이어졌고, 박화정을 바라보고 있는 내가 있었다. 그리고 종이 찢고, 그대로 자리에 앉아야만 했다. 나의 모든 집중은 칠판과 선생님이 아닌 짝꿍이 있는 오른쪽을 향했다. 다시 한 번 박화정의 필통이 보인다. 박화정의 누런 신발이 생각났다. ‘내 돈으로 새 단장이라도 하려고?’ 필통에 대한 토론이 다시 시작될 참이었다. 내 친구 지훈이가 없는 사실로 박화정을 모함했을 리는 없으리라 생각했다. 나는 당장이라도 박화정이 내 돈을 훔쳤는지 알아내고 싶었다. 한 시간이 채 안 되는 수업 시간 동안, 시계를 몇 번이고 확인하며 종소리를 기다렸다. 그나마 다행히도, 그 한 시간은 나의 감정을 다소 추스를 수 있도록 해 주었다.

드디어 수업이 끝나고, 선생님이 나가셨다. 나는 박화정에게 조심스레 말을 걸었다.

“저기...”
“...”
“화정아, 뭘 좀 물어봐도 될까?”
“...”
“아니, 아까 들어서 알겠지만, 돈이 들어있던 봉투가 없어졌거든. 아침에 분명 챙겨왔고, 아까 책 꺼낼 때 있는 것도 봤어. 근데 체육을 하고 오니까 없어져서...”
“내가 훔쳐갔나고?”

낮선 박화정의 중저음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들려왔다. 여전히 나를 똑바로 바라보진 않지만, 박화정은 눈을 매우 부릅뜨고 있었고, 내가 있는 방향으로 고개를 살짝 틀고 있었다. “박화정. 정말 너 아니야? 아까 너 체육 시간에 어디 갔다 오지 않았어?” 아영이 말했다. 맞다. 아까 우리가 걷고 있을 때, 박화정은 어딘가 다녀온 후 뒤늦게 계단에 앉았다. 나는 조용히 박화정을 바라보았다. “난 화장실에 갔다 왔을 뿐이야. 내가 안 훔쳤어.” 박화정은 단호한 듯 말했다. “야, 너 솔직히 말해. 작년에 돈 훔치다가 걸렸잖아. 아직도 못 고쳤나?” 지훈이 큰 목소리로 말하며, 이쪽으로 다가왔다. ‘작년에도?’ 나는 의심이 가득 서린 얼굴로 박화정을 다시 쳐다봤다. 박화정의 얼굴은 빈 곳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다. 그 눈엔 금세 눈물이 차올랐고, 짙은 턱이 그 눈물을 참기 위해 빠르게 떨리더니 이내 자리를 박차고 교실을 나갔다. 나는 당황스러웠다. 코앞에서 그런 표정을 지으니 내가 몸을 짓이라도 한 것 같았다. 나는 박화정이 열고 나간 뒷문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다. 반에선 모두 박화정에 대해 얘기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무엇이든 정의하기 힘든 불안함이 차올랐다. 이내 아영이가 일단 밥을 먹으러 가자고 하여 겨우 생각을 떨치고 뒷문에서 시선을 돌릴 수 있었다.

박화정은 점심시간이 끝난 후에도 교실로 돌아오지 않았다. 박화정의 책상에는 4교시 과목이었던 수학책이 그대로 올려져 있었다. 선생님께서 반 아이들에게 박화정의 행방에 대해 물었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선생님은 가우똥거리며 빨간 펜으로 출석부에 무언가 끄적이지더니 수업을 시작했다. 쉬는 시간마다 아이들은 박화정에 대한 토론을 곳곳에서 벌였다. 그리고 출석부에 두 번 더 빨간 펜이 그어지고 날 때까지도 박화정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종례 시간이 되고, “혹시 화정이 교실로 오면 나 보고 가라고 말해라.”라는 선생님 말씀과 함께 수업이 끝났다. “박화정 결국 안 왔네. 찢리는 게 있으니까 안 오는 거 아니야?” 아영이가 휘 뒤로 돌더니 말했다. “글쎄...” 내가 그런 아영이의 시선을 피하며 말했다. “내가 말했다. 개 작년에 그랬다고.” 지훈이가 한쪽 어깨에만 가방끈을 걸친 채 내 옆 책상에 걸터앉더니 말했다. “그리곤 아영이의 적극적이고 호기심 어린 질문을 시작으로 둘은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대체 작년에는 뭘 했는데?”
 “박화정 작년에는 이미주, 신소영이랑 친했던 거 알아?”
 “아 맞아. 셋이 그렇게 친하더니 어느 순간 안 다니더라.”
 “그거 박화정이 이미주 지갑 훔쳐서 그런 거야. 가뜩이나 이미주 지갑이 엄청 비싼 거여서 반에서 얼마나 난리가 난 줄 아냐?”
 “진짜? 어떻게 알았는데?”
 “그때 이미주가 지갑 새로 샀다고 자랑하자마자 사라져서 박화정이랑 신소영이 같이 찾아주고 달래줬단 말이야. 근데 그 지갑이 박화정 가방에서 나오니까 화가 안 나겠냐?”
 “헐. 그럼 친구 지갑을 부러워서 훔친 거야? 박화정 진짜 도벽 있나 보네.”

“박화정도 자기 아니라고 울며불며 얘기했는데 이미주가 화나서 때리려고 하더라. 신소영이 계속 이미주 막다가 선생님 오시고 나서야 싸움이 끝났어. 이것도 선생님이 떠돌고 다니지 말라고 해서 덜 퍼진 거야. 모르는 애들 꽤 있을 걸?”
 “이미주가 박화정을 그렇게 챙겨줬는데 정말 은혜도 모르네. 솔직히 이미주랑 박화정이 급이 안 맞긴 했어.”

둘이 하는 얘기를 조용히 듣던 중, 아영이가 ‘급’이라는 얘기를 하자 나도 모르게 몸을 움찔거렸다. 우리가 박화정의 급을 나눌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일까. 급이 낮은 사람들은 급이 높은 사람들을 동경하며 심지어 도둑질하는 사람이 되는 걸까. 나도 모르게 아영이의 말에 반감을 가지며 박화정이 오해를 산 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지금 의심할 수 있는 사람은 박화정 뿐이었다. 결국 모두가 비난하고 의심하는 것은 박화정뿐이니까, 나도 박화정에게 화살을 겨눌 수밖에 없었다. 결국 나는 박화정이 돌아올지 안 올지 모르지만, 일단은 기다리기로 했다. 결심하자마자 나는 아영이와 지훈이에게 집에 먼저 가라고 했다. 그 둘은 내 눈치를 살피더니 “조금만 있다가 가.”라며 어깨를 토닥이더니 나갔다. 이미 종례가 끝난 후로부터 시간이 꽤 지났던 터라 아영이와 지훈이가 나가자 교실엔 나 혼자 남게 되었다. 비로소 혼자 있게 되니 한숨이 나왔다. ‘왜? 왜 내 가방이 어딴 했을까. 왜 오늘이었을까. 엄마한테는 뭐라고 말해야 할까. 돈을 다시 달라 그러면 돈을 더 받고 싶어서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시진 않을까?’ 차마 머리가 아파지는 것을 참지 못하고 펼쳐진 양손에 고개를 박았다. 옆을 보니 아직도 박화정의 책상 위에는 수학 책이 그대로 있었다. 사프도, 필통도, 우유도 그리고 가방도 그대로 있었다. 가방, 그레 가방이 있다. 나는 복도 창문을 잠시 주시했다. 아무도 지나가지 않았고,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나는 박화정의 가방을 책상 고리에서 빼지 않은 채로 뻥뻥한 지퍼를 강하게 열어 내렸다. 가방 안에는 공책 몇 권, 일회용 파일 한 개, 종합 문제집 한 권이 들어있었다. 내가 정말 잘못된 의심으로 박화정을 궁지에 몰아넣었던 걸까. 상기되었던 마음이 조금 가라앉을 참다, 일회용 파일 안에서 익숙한 봉투가 보였다. 그레 이건, 내 봉투였다. 내가 아침에 엄마한테 건네어 받은 흰색 봉투였다. 봉투는 비어있었다. 다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박화정, 너는 정말 도둑년이었던 거야. 작년에도 지금도 또 내가 모르는 언젠가 너는 누군가의 것을 빼앗고 살아왔겠지. 돈이 사라졌을 때 보다 더한 분노가 봉투를 쥐고 있는 손끝부터 온몸에 퍼져 올랐다. 그리고 생각했다. ‘우린 같은 급이 아니야.’ 그때였다. 교실 뒷문에서 소리가 났다. 고개를 들어보니 박화정이었다.

박화정은 당황한 듯 나를 쳐다보았다. 그러더니 내 손에 쥐어진 흰 봉투를 보곤 성급 다가와 봉투를 빼앗았다. 우리 둘은 잠시 동안 서로를 노려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내 분에 못 이겨 흘러넘치는 숨소리가 교실을 메웠다. “너였어.” 정적 속에서 나는 먼저 입을 뗐다. 너무 화가 났고, 박화정이 분명한 범인이라는 사실에 당장이라도 맥살을 잡고 몰아세우고 싶었다. 작년처럼 눈물을 흘리지, 아니면 뻔뻔하게 아

니라고 변명할지, 나는 박화정의 대답을 기다렸다. 박화정은 노려보던 상태 그대로 나에게 한 발자국 더 다가왔다. “맞아. 내가 훔쳤어.” 박화정이 콧웃이 서서 말했다. “하, 어이가 없어서.” 나는 헛웃음과 함께 말이 튀어나왔다. “내나. 내 돈.” 그리고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안 훔쳤다고 해도 날 의심할 거잖아.” 박화정이 말했다. 그녀의 지적은 조금 예리하고 날카롭게 들려왔다. “그게 중요해? 어찌 되었건, 네가 돈을 훔친 게 맞잖아!” 나는 당황스러움을 감추기 위해 다소 큰 목소리로 말했다. 박화정은 여전히 나를 노려보고 있었다. “내가 훔치기 전에 말이야. 아침에 정지훈이랑 내 얘기 했잖아. 도둑년이라고.” 박화정이 말했다. 나는 순간 움찔했다. 지훈이가 작게 말했다고 생각했는데 다 들렸던 모양이다. “그리고 아까 송아영이랑 공책에 내 얘기도 했잖아.” 박화정이 이어서 말했다. 나는 약간의 탄식이 흘러나왔다. “공책 건은 미안해. 너랑 얘기를 안 해봐서 궁금해서 그랬어.” 나는 조금은 부드럽게 말하려고 노력했다. “내가 도둑년인지 궁금했던 건 아니고?” 그러자 박화정은 훨씬 알고 있다는 듯이 말했다. 나는 그런 박화정의 태도에 당황스러워 사그라들었던 분노가 다시 올라왔다. 나를 꺾뚱어 보듯 말하는 태도가 화가 났다. 박화정의 그런 모습이 되려 내가 박화정이 별반 다름없는 사람처럼 느껴졌다. 내 행동쯤은 다 안다는 듯한 그 올라간 입꼬리가 날 더 비참하게 만들었다. “중요한 건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작년에 내가 했던 일도 들었어. 그리고 지금 네가 들고 있는 봉투 말이야. 네 가방에서 나왔어. 그리고 네가 훔친 거라고 인정도 했잖아.” 나는 침착하게 말했다. 도둑한테 도둑이라고 말하는 것이 뭐가 나쁘겠는가. 그렇게 생각했다. “내가 봤어? 작년에 내가 이미주 지갑 훔친 거?” 박화정은 이번엔 고개를 돌리니 내려 보는 눈으로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내가 작년에 그 일 때문에 얼마나 억울하고 힘들었는지 알아? 이미주 지갑 따위 하나도 안 갖고 싶었어. 신소영이 나랑 둘이 있을 때마다 이미주 부럽다고, 재수 없다고 얼마나 얘기했는지 아냐고.” 박화정은 조금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나갔다. “신소영이 이미주가 맨날 자랑하는 꼴이 재수 없다고 몰래 지갑 훔치겠다고 나한테 말했어. 말했지만 결국 훔친 거고 근데 막상 지르고 나니까 일이 커진 거지. 어느새 내 가방에서 지갑이 나오더라.” 박화정이 작고 빠르게 말했다. 나는 박화정의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박화정의 말에 빠져들고 있던 것은 분명했다. “근데 왜 그때 말하지 않았어. 사실대로 말했으면...” 내가 말을 채 다 하기 전에 박화정은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말했어! 말했다고! 근데 아무도 안 믿는 걸 어떡해! 내가 제일 만만했겠지. 돈도 없고 소심하고, 누명을 씌우는 것도 화풀이 하는 것도 나라서 그랬겠지.” 박화정은 크게 숨을 한 번 들이 마시곤, 다시 말을 이어나갔다. “내가 네 돈 왜 훔친 줄 알아? 너희끼리 속닥거리는 거 때문에, 또 손가락질 받고 억울해질 바에 그냥 진짜 훔쳐버린 거야. 너희 망상에 내가 맞게 행동해준 거라고 진짜 도둑년이 된 거지.” 박화정은 책상에 주먹을 올린 채로 숨을 가쁘게 쉬며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 모습은 조금이라도 더 말을 했다간 나에게 달려들 것만 같아 보였다. 박화정이 자기 입으로 ‘도둑년’이라 하니 더 말을

이어가기도 불편했다. “알았어. 알았다고 박화정. 내가 오해하고 얘기한 것 같아. 일단 진정해. 나도 돈만 돌려받으면 내일 애들한테 해명해볼게.” 아직 나의 마음도 진정되진 않았지만, 이대로 말싸움을 벌일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나도 돈만 받고선 서로 모든 척 졸업까지 몇 달만 버티면 되는 일이었다. “돈? 그리고 보니 너도 신소영 못지않더라?” 박화정이 눈썹을 치켜세우며 말했다. “또 무슨 소리야. 돈만 주면 된다고.” 나는 살짝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너 말이야. 봉투에 오만 원밖에 안 들어있었는데, 왜 애들한테 십오만 원이라고 거짓말한 거야?” 박화정이 주머니에서 오만 원을 꺼내 들며 말했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이런저런 말로 동정심을 사더니 결국 십오만 원이라도 챙기려던 것 같아서, 그 모습이 너무 꼴 보기가 싫었다. “박화정.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해. 너의 태도를 보니까 당장 해결하는 건 무리일 것 같다. 내일 아침에 당장 십오만 원 줘. 안 주면 그대로 선생님께 가서 말할 거니까.” 나는 대답하듯 쏘아붙이고 교실 뒷문을 빠져나왔다. 집까지 걸어가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다. 일 년 동안 말 한마디 안 해본 애랑 짝이 되자마자 대판 싸우고 말았다. 최근에 어떻게까지 누군가에게 화를 내본 적이 있었던가. 아니, 살면서 처음인 것 같다. 긴장이 풀리면서 떨어오는 손으로 눈물을 닦으며 집으로 걸음을 서둘렀다.

동 동 동. 날을 새고 말았다. 7시 50분에 울리는 첫 번째 알람을 끄고서 침대에 걸터앉았다. 학교에 가는 것이 무서웠다. 박화정이 돈을 정말 줄지, 안 주면 선생님께 정말 말씀드려야 할지, 그리고 애들한테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모든 것이 불안하고 확신이 안 섰다. 그리고 박화정이 한 말이 모두 사실인 것인지 나를 속인 것인지에 대해서도 혼란스러웠다. 학교를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지만, 차마 그럴 순 없었다. 내가 피하는 꼴이 되진 않았다. 결국 그동안의 야침과는 다른 무거움을 잔뜩 인 채로 몸을 일으켜 학교에 갈 준비를 시작했다.

동생은 오늘 기분이 좋아 보였다. 아침부터 저렇게 웃고 있는 모습을 최근에 본 적이 없는 것 같다. 사람 속도 모르고 한 그릇을 깨끗이 비우는 동생의 모습에 괜히 짜증도 났다. 밥을 다 먹고, 현관문을 반쯤 열었다. “다녀오겠습니다.” 나는 말했다. “엄마 다녀올게!” 동생이 신발장에서 깨끗하고 비싼 신발을 꺼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다. 나는 그 모습을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동생은 문을 잡고 있던 나의 팔 아래로 뛰어났다. 나도 현관문을 닫고 동생을 따라나섰다. “너는 돈도 없다면서 그런 신발을 어디서 샀어?” 나는 동생에게 물었다. “어제 용돈 날이었잖아. 엄마가 내가 하도 용돈을 올려 달라고 해서 그런지 돈을 엄청 많이 줬어!” 동생이 싱글대며 나에게 말했다. 나는 그 신발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나는 그 신발을 본 적이 있었다. “너, 그거 친구 신발이랑 똑같은 거 아니야?” 내가 신발을 가리키며 물었다. “맞아! 개가 자기는 새 신발 또 살 거라고 나한테 십오만 원에 팔았어!” 동생이 말을 끝내곤 앞으로 뛰어갔다. 그곳엔 어제 본 친구가 온통 다른 브랜드의 옷을 입고 동생을 기다리고 있었다. 물론 신발도. 나는 새 신발을 신은 동생과 친구의 뒷모습을 한동안 바라보고 서 있었다. 그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소설 부문 심사평

36회째를 맞고 있는 한성문학상 현상공모전의 소설 부문 응모작들은 전반적으로 상당한 수준에 이른 작품이었다.

「어린 양은 곳곳에 날카로운 표현이 있고 비판 정신이 살아있으나, 사건의 열개가 미숙하여 균형을 잃은 점, 형상화의 객관성을 얻기 위한 창작의 개념이 아직 부족한 글이라 아쉽다.

「낙타는 니이체 사상을 음미해 알레고리를 그렸지만 플롯이 서지 않았고 필진성도 떨어져 몽상의 편린으로 되었다.

「사막은 성민의 죽음을 빈소 풍경 중심으로 잘 모았다. 취준생과 젊은이들의 고통을 다룬 주제 의식도 좋으나 몇몇 애매한 서술들이 아쉬웠다.

「나는 그냥 별 일 없이 잘 산다는 플롯은 비교적 잘 썼으나 이야기의 유기성이 허술해 형상이 깊이 파이지 못했다. 냉소적인 문장은 이채롭다.

「나는...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 19) 사태로 생존 불능 경계까지 내몰리는 가족의 모습을 잘 그렸다. 고통을 응시하는 진지함이 돋보인다. 비교적 숙련된 문장이었지만 곳곳에 허점도 보이면서 완성도의 결핍으로 이어지는 아쉬움이 컸다.

「명령은 이복 오빠의 혼이 아들에게 씌였을지도 모른다는 어느 어머니의 이야기로 시작해 이복 오빠의 혼

이야기로 마무리되는 작품으로, ‘죄책감이 삶을 찢었다’와 같은 문장으로 결핍된 상황과 정서를 묘하게 표현하고 있다. 암울하지만 담백한 분위기를 표현하는 쉽지 않은 개성이 좋으나, 이야기 짜임새 부족이 아쉬웠다.

「추운 겨울은 희망은 일종의 치유 환상 수기다. 이런 시도는 게임에 익숙한 세대의 글쓰기일 듯하다.

「새 신발은 고교 3학년 여학생을 화자로 내세운 작품으로 약간 소품적인 요소가 보이지만 완성도가 아주 뛰어나다. 몸에 꼭 맞는 세련된 옷을 보는 듯하다. 마무리 반전도 효과를 높였고, 정확한 단어 구사와 구성으로 리얼리티를 잘 살리고 있다.

「어느 재단사에게는 휴학생인 21세 화자가 코로나 19 시국이지만 답답해 베트남으로 여행을 떠나는 이야기인데, 심리묘사가 좋고 솔직함이 매력을 높인 글이지만 사건의 열개가 좀 느슨한 것이 흠이었다.

이처럼 저마다의 특징을 가진 글 가운데 구성의 기본인 등장인물 묘사 능력, 배경과 소재의 리얼리티를 살리는 능력, 사건의 열개를 짜는 솜씨, 작가가 가진 상상력과 문제의식과 사색의 깊이, 정확한 표현력과 개성을 살리는 능력 등에서 뛰어난 재능을 보인 「새 신발」을 당선작으로 선정했다. 수상자에게 축하드리며, 응모하신 분들의 지속적인 정진을 바란다.

김성달(한국소설가협회) 소설가

소설 부문 수상소감



김명진(인문 4)

어릴 적부터 국어라는 과목이 이유 없이 좋았고, 문학에 관심이 깊습니다. 그렇다고 뚜렷한 재능이 있다고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백일장 상을 탄 적이 있는데 그때 잠깐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이라는 생각이 가득할 때였지요. 이후 글과 관련된 동아리를 하며, 글 관련 상을 자주 받곤 했습니다. 자연스레 대학도 국문과에 진학하길 원했습니다.

처음 한성대학교에 와서 국문과 편집부 활동을 했습니다. 간혹 부장님이 해주시는 칭찬은 제 글에 대한 애정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자만이 생긴 것 같아 다시 글을 읽어보면, 부족함이 적나라하게 보였습니다. 제 글이 참피하고 재미가 없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다 2019년 한성대 글쓰기 대회에서 상을 탄 적이 있습니다. 두서없이 적었던 글이지만 수상을 하고, 칭찬을 받는데 기분

이 이상했습니다. 부족한 솜씨로 적어갔던 제 글이 상을 받을만한가? 다만, 그 의문에 답이 됐던 것은 당시 평소의 제 생각을 그대로 담아서 썼다는 사실입니다. 그 진심이 이번 수상 역시 쥐어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021년 10월, 우연히 제36회 한성문학상 현상공모를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너무 바빠고 시간도 촉박했으며, 저보다 잘난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했기에 참가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기간이 연장이 되었다고요. 왠지 지나쳐선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학과 거리를 두고 지내지 2년이 다 되어가는데, 글을 써볼까 한 날 단숨에 「새 신발」을 완성했습니다. 사실은 나의 부족한 실력을 핑계로 문학을 멀리하고, 노력을 소홀히 하고 있었던 건가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가에 의의가 깊다고 생각하던 참입니다. 애써 수상에 대해 신경 쓰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수상 메일이 와있더군요. 우연히 참가했지만, 사실 우연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외면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인정하고 나니, 제 글이 누군가에게 읽힐 수 있고 평가될 수 있음에 가슴이 벅칩니다. 이번 수상이 앞으로 나아갈 또 한 번의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한성문학상에 참가한 다른 분들도 여러 고민과 마음을 담아 작품을 내었겠지요. 우리 모두 각자의 부족함을 안고 ‘나의 글’을 써 내려가시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시 부문 가작

월식

조윤식

등그런 보름달이 차오른 듯
 가로등 불빛이 비친 동공을 보았다
 여름비가 뒤늦게 쏟아져 내리기 시작한 그런 밤이었다

하얀색의 기다란 지팡이는 쏟아지는 빗소리와
 같은 소리를 내며 조금씩 앞으로 전진했다
 다만 내 귓속엔 내가 걸어가는 발자국 여러 개만
 울려 퍼진다

저 사람의 귓속에서는 어떤 소리가 들릴까
 눈 아프게 현란한 전광판의 불빛 소리가
 지나가는 한무리 친구들의 줄무늬 티셔츠 소리가
 땅바닥에 떨어져 젖고 있는 흰색 마스크 소리가
 내 머리에 걸치고 있는 노란색 모자 소리가
 침대에 누워 글 따위를 끄적이는 연필 소리가 들릴까

물소리 가득한 밤 길거리에서
 비 웅덩이에 비친, 사람들의 소리를 찾고 있는
 움직이지 않는 동공을 보았다

얼굴도 모를 사람들을 피해
 영영 마주치지 않을 사람들을 피해
 마음속 깊은 곳으로 침전하면서
 그의 동공은 꽤나 분주하게 멈춰있었다

시 부문 가작

아이보리

최현아

집으로 향하는 지하철 환승길
 풀내에 이끌려 따라간 작은 꽃집
 노란 꽃 파란 꽃 널린 강통 사이
 희미한 툴립 한 송이가 말을 걸어온다

혼잣말처럼 들릴 듯 말 듯
 이름없이 죽어가는게 슬프다고

나는 우울한 꽃을 집어올려
 계산대에 얹고 삼천원을 낸다
 흰 종이로 대충 싸인 꽃을 쥐고
 등그러운 지하철에 몸을 싣는다

힘 없이 입을 내려놓은 꽃이
 어두워진 차창을 내다보며 중얼댄다
 기쁨에는 이유가 필요하지만
 슬픔에는 이유도 필요없다고

페트병 물속에 꽃땀 담그자
 희미한 낮빛이 더욱 희미해지고
 어느 날 문득 들여다보니
 꽃은 더이상 숨을 쉬지 않았다

꽃 있던 자리 흐린 물 속
 지친 외로움만 거기 있었다

시 부문 심사평

심사를 위해 투고된 시를 읽는데, 아쉬움이 많이 남는 심사였습니다. 좋은 작품이 많아서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라는 즐거운 고민을 하고 싶었지만, 한눈에 들어오는 좋은 작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에 대한 자의식이 없이, 시를 쓰겠다는 노력과 언어에 대한 자의식이 없이 단순한 상념의 나열에 그친 시가 많았습니다. 일기장에 적어 놓은 단상들은 시적 소재가 될 수는 있지만, 그것 자체가 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당신의 이별은 당신의 이별일 뿐이고, 당신의 사랑은 당신의 사랑일 뿐입니다. 이별이나 사랑 같은 보편

적 주제는 말 그대로 보편적이어야 합니다. 독자가 읽고 공감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독자가 읽고 공감할 수 있을까 싶은 시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계절과 관련한 시도 유난히 많았는데, 겨울에 눈이 오고, 여름에 장맛비가 내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요. 그것이 다른 것과 연결되어 또 다른 상상력을 보여준다면 다른 문제이겠지만, 오롯이 오고가는 계절에 충실합니다. 시는 늘 있는 것을 새롭게 보는 맛이 있어야 합니다. 시적 대상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새로운 표현을 찾는 것이 시를 쓰는 사람의 일

이지요. 투고자 중에는 시가 아니라, 글을 참 잘 쓰는 투고자도 있었습니다. 잘 쓴 산문에 행과 연을 구분해 놓은 것들이지요. 좋은 글이었지만, '시를 쓰는 훈련이 좀 되었다면 좋았겠다' 하는 아쉬움이 남는 작품들이었습니다. 투고자 중에서 「월식」, 「아이보리」, 「스노우맨」, 「대나무」, 「종국」 다섯 편의 시를 1차로 고르고, 고민 끝에 「월식」과 「아이보리」 2편을 가작으로 선택합니다. 「월식」은 시각적인 이미지조차 소리로 확인할 수밖에 없는 시각장

에인의 눈동자를 포착한 시적 안목과 밀고 나가는 힘이 괜찮아 보였습니다. 「아이보리」는 슬픔이나 외로움을 과도하게 드러내지 않는, 잔잔한 목소리가 듣기 좋았습니다. 「스노우맨」은 참신한 발상이라는 점에서, 「종국」은 반짝이는 표현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좋았지만, 다소 산문적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대나무」는 깔끔한 한편의 소품이었지만, 당선작으로 뽑기에는 아쉬움이 남는 작품이었습니다. 당선자들에게는 축하를, 다른 투고자 모두에게 건필을 기원합니다. 강호정(크리에이티브인문학부, 시인) 교수

시 부문 수상소감



조윤식(서양화 5)

제가 쓴 시로 처음 수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선물과도 같은 이 경험에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제가 본격적으로 시를 쓰지는 2년 정도 되어갑니다. 그다지 오래되지 않았죠. 그전에는 시를 쓴다는 게 다소 부담스럽기도 하고 어려워 쉽게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남들에게 딱히 하고 싶은 말도 없고 제 자신에 대해 잘 모르기도 했습니다. 삶의 경험이 없었던 백지상태였다고 할 수 있죠. 미술 전시를 돌아다니다 보면 여러 단어들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주로 전시의 제목이나 작가노트, 전시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텍스트들은 작품을 보조하는 동시에 완성시키기도 합니다. 별거 아닌 거 같은 짧

은 글자들은 저에게 이유 모를 감동과 여운을 남겨주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울림을 주는 짧은 구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시를 쓸 엄두는 나지 않았지만 꾸준히 기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길을 걸어가다 혹은 지하철 안에서 사색에 잠길 때, 어느새 시상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참 신기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쌓인 시상을 모아 문장을 만들었고 문장을 모아 시를 쓰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면 어설픈 글들이지만 당시의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유일한 통로라서 즐겁습니다. 시상이 우연히 만들어진 순간들은 저러는 부족한 하나의 사람에 대한 공부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경험은 하나하나 쌓여 저를 만들어가며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주간 창작의 이슬아 작가는 "글쓰기는 남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연습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아직 이기적인 제 자신이지만 글쓰기를 통해 저의 시선을 타인으로 옮길 수 있다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또한 글을 통해 사랑하는 대상을 불멸화하는 과정은 가슴 벅차지요. 이번 수상을 계기로 더 열심히 시를 써 볼 용기가 생겼습니다. 감사합니다.

시 부문 수상소감



최현아(ICT 4)

제가 시가 가작으로 선정되었다는 메일을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기쁨은 약이 되기도 하네요. 아픈 몸으로 아르바이트를 겨우 마치고 돌아와 타이레놀 한 알을 먹고 약발이 들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진정되지 않는 마음을 꼭꼭 눌러가며 내용을 자주 다시 확인하다 보니 어느새 아픈 것도 잊어버렸습니다. 사실 중고등학교 때 시보다는 소설을 좋아했고, 새 학기에 교과서를 받으면 소설과 수필만 모두 읽어버리곤 했습니다. 소설은 서사가 있어 흥미롭지만 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대학생이 되어 읽어본 시집의 감상은 이전과 꼭 달랐습니다. 어떤 시는 철렁 가슴이 내려앉고, 본 적도 없는 장면을 눈앞에 그려놓고,

늘 읽고 쓰던 단어들이 생경하게 다가오기도 했습니다. 덕분에 저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외닿는 시를 써보고 싶어졌습니다. 작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서툰데 미숙한 티가 났을 제 시를 가작으로 선정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한성문학상 투고는 이전부터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4학년이 되어서야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용기를 냈습니다. 조금 더 잘 써보라는 뜻으로 주시는 상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종종 시를 써 보려합니다. 아직은 제 글을 어디에 보여준다 생각하면 낯이 뜨거워지지만, 조금 더 용기를 낸다면 앞으로는 혼자 쓰는 것이 아니라 쉬이 남에게 보여줄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이 글을 쓰는 지금은 서양화 졸업전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다 보니 시가 그림과 닮은 데가 많다 싶기도 합니다. 그림도 완성하고 나면 이런저런 부분을 수정하고 싶고, 다시 보면 부끄러운 부분이 생기기도 하는데 써놓은 시들을 다시 보니 똑같은 마음입니다. 더 많이 읽고 경험해서, 시도 그림도 지금보다 더 공감할 수 있고 입체적인 것으로 그려나가고 싶습니다.

· 삼 학 송 ·

사도(邪道)로 내몰린 대학 언론

‘제1282호 종이신문 배포가 중단됐습니다. 학교 본부로부터 일부 기사에 대한 수정 요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22일 숭실대학교 학보사 ‘송대시보’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된 사과문의 일부다. 지난 10월 27일에 송대시보 소속 기자 전원이 해임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숭실대학교 『신문·방송국 규정』 제7조 3항, ‘주간은 신문방송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각 언론기관의 임명직 임원에 대한 추천 및 임명권을 가진다’에 근거한 해임이었다.

하루가 지난 10월 28일, 송대시보 기자단은 본부와 합의 끝에 전원 복직됐다. 그러나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또 다시 기사 내용을 검열당했으며, 결국 ‘예산 부족’의 명목으로 발행이 중단됐다. 언론 탄압의 사례는 수없이 다양하다.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슬쩍 들추기만 하더라도 자유를 되찾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언론을 슬하게 찾아볼 수 있다. 필자는 2021년 끝자락에 와 있는 지금까지도, 언론 탄압이 발생한다는 사실에 비탄을 금할 수 없다.

대학 언론에 몸담고 있다면, 한 번쯤 기사 내용의 수정을 요구당했으리라 짐작한다. 편집권은 지면의 어느 위치에 어떤 내용을 삽입할지 결정하는 권리다. 대학 언론의 3권 중 하나이며, 사회 그 누구도 내용 수정을 강요하거나 게재를 막을 수 없다. 사실을 자유롭게 실을 권리인 사실권과 학내구성원에게 신문물을 자유로이 배포할 수 있는 배포권도 대학 언론에 귀속되어 있으며, 당연히 지켜져야 한다.

혹자는 ‘대학 언론이니 대학에 긍정적인 편향을 가져야 하는 것이냐’, 왜

굳어 부스럼을 만드냐고 말한다. 동의할 수 없다. 대학 언론은 소속 대학의 발전을 위해 일한다. 대학 언론 본질은 본부와 학생회를 견제하는 것이다. 언론이 바로 서야 학생의 알 권리가 지켜진다. 대학 언론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학생의 권리 수호가 가능할지 없다. 단지 대학 언론인뿐만 아니라 대학 사회 전체가 언론 탄압에 분노해야 하는 이유다.

『대한민국헌법』 제21조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한다. 언론은 ‘신문이나 텔레비전, 인터넷 등 매체를 통해 어떠한 사실을 밝혀 알리거나 어떤 문제에 대해 여론을 형성하는 활동’을 말한다. 헌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 및 의무를 규정한 최고법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지만, 지키기 위해 애써야 한다는 사실과 결국 자유를 빼앗겼다는 사실이 필자를 무기력하게 만든다.

고재규 <시사IN> 제6대 편집국장은 지난해 3월, 제11회 <시사IN> 대학기자상 - 특별상 심사평’을 통해 ‘심사위원들은 특별상 수상자가 없을 만큼 대학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전히 대학 언론을 향한 탄압은 계속되고 있다. 술한 외압을 견뎌내는 학보사 기자들의 길을 그 누가 이해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도 정도(正道)를 걸어 나가는 이유는 단 하나다. 가깝고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전달해 대학이 학생의 눈을 가리지 않도록 감시하는 것이다. 모든 대학 언론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리며, 참담한 마음을 추슬러본다.

신해림 편집국장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이 지난 11월 28일 양질의 청년 일자리 보장을 요구하는 ‘청년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서울시청부터 청와대 방향의 참가자들의 행진도 이뤄졌다. 이날 민주노총 소속 청년 조합원들은 인력 충원, 안전한 일자리 보장 등을 포함한 질 좋은 청년 일자리 마련을 촉구했다. 청년이 자신의 일자리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우리 사회는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청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김기현 기자

■ 기자수첩

‘한성대신문사는 학우님과 함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작년 4월, 수습기자로 합격했을 당시 받은 문자 메시지다.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대학 생활의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었지만, 신문사 활동 덕분에 활기를 찾을 수 있었다. 2년여간의 기자 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기사를 꼽자면 ‘대학 내 육체노동자의 삶’을 다룬 사회 기사다. 서울대학교 청소년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을 목도한 후, 대학 내 육체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아이템 발매부터 기사 작성까지 심혈을 기울였다. 독자에게 육체노동자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알리고자 현직자와 컨택을 시도했고, 대학 내 육체노동자가 보이지 않는 갑질에 시달리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실제로 그들 중 일부는 언론사와

켜져 있는 불빛을 뒤로하고

취재에 응하거나 노동조합에 소속됐다는 이유로 대학의 압박에 시달리고 있었고, 이 같은 사실은 가슴 한 편을 아리게 만들었다. 50여 개의 기사를 작성하면서 겪은 신문사는 생각보다 더 순탄치 않았다. 기사 작성을 위해 교수, 단체 등에 인터뷰를 요청하면 대부분 거절당하기 일쑤였고, 일면식 없는 사람과 대화하는 일도 쉽지 않았다. 인터뷰가 끝난 후에는 정확한 기사 작성을 위해 속기 작업에 돌입하는데, 그 과정에 쏟는 시간과 노력도 상당했다. 무엇보다 마감 주와 시험 기간이 겹칠 때가 가장 힘들었다. 수습기자부터 정기자, 부장기자를 거치는 동안 계속해서 떨어지는 성적 탓에 신문사를 포기하고 싶었던 적이 없었다면 거짓말이다. 그럼에도 활동들

지속한 이유는 남아 있는 기자들을 위해서였다. 적은 인력 탓에, 필자가 그만둔다면 다른 기자가 나의 몫을 짊어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버티기에 가까웠던 기자 생활이 드디어 마무리된다. 하지만 나의 동료들은 앞으로 학내 구성원에게 필요한 정보를 알리기 위해 고군분투할 것이다. 본인이 맡은 기사를 마무리하고자 밤을 지새우는 기자들을 뒤로한 채, 홀로 퇴임하는 것이 마냥 상쾌하지만은 않다. 오늘도 자정이 넘도록 신문사의 불은 꺼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학생 신분의 기자로서 어떠한 신문사를 본업으로, 학업을 부업으로 삼는 이들이 한 자 한 자 적어낸 신문을 꼭 한 번 읽어보길 바란다. 조정은 기자

■ 의화정

방구석 온라인 수업 너머 더 넓은 세계를 향해

대학에 몸담고 나서 부쩍 청년문제에 관심이 커진다. 2년째 이어지는 비대면 상황에서 우울감을 느끼는 청년들이 많다는 뉴스를 들으면 한 귀로 흘려들을 수 없다. 우리 학생들에게 무엇을 좀 더 경험하게 하면 좋을까 고민한 끝에 역할상 전략을 택했다. ‘학생들에게 시공간을 초월하여 세계와 연결되도록 해주자!’ 팬데믹 상황에 적응하면서 이제는 온라인 컨퍼런스가 익숙해지고, 해외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출장을 가지 않고도 일 처리가 가능해졌다. 오히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니 더 활발한 교류가 일어나고 있다. 이렇듯 변화된 상황을 반영하여 2021년 1학기, 2학기 국제개발협력 교양과목을 가르치면서 몇 가지 재미있는 도전을 해보았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각지에 있는 개발협력 전문가를 초청하였다. 덴마크 코펜하겐 경영대학원에서 공부하는 개발금융 전문가로부터 혁신적 개발협력에 대해 배웠다. 워싱턴의 아쇼카재단에서 일하는 애널리스트는 체류 중인 하와이에서 소셜임팩트와 개발협력에 대해 알려주었다. 덴마크의 동트는 새벽 풍경과 하와이의 노을 풍경을 웹엑스 창 너머로 보는 재미가 쏠쏠했다.

또한 수업을 듣는 전체 학생들은 캄보디아의 꼬마도서관을 돕는 비대면 봉사 활동을 하였다. ‘아름다운 배움’이라는

단체를 통해 프놈펜의 보육원과 시골 학교의 소외된 아이들을 위한 영어 동화책을 보내고 한글, 전문문화, 기초과학, 세계시민교육 등 교육영상을 제작하였다. 꼬마도서관을 운영하는 캄보디아 대학생들이 온라인 실시간 수업에 참여하여 현지 상황을 전해주고 봉사활동 중간, 최종 결과물을 함께 검토하여 활용도를 높였다. 방구석 온라인 수업이었기에 오히려 랜선을 넘어 아시아, 미국, 유럽으로 뻗어나갈 수 있었다.

캄보디아의 대학생들은 스스로를 ‘영제너레이션’이라 불렀다. 킬링필드의 역사적 아픔을 딛고 빈곤의 굴레를 벗어나 모두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진심을 다해 노력하고 있었다. 안타깝게도 훨씬 풍요로운 환경에 있는 한국의 대학생들은 치열한 경쟁과 막연한 불안감에 어깨가 더 움츠러들어 있다.

한성대학교 학생들이 글로벌 사회를 향해 당당하게 전진하기를, 나만을 위한 경쟁이 아니라 모두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도전하기를 바란다. BTS가 UN총회 회의장에서 뮤직비디오를 찍고, 오징어게임 배우들이 미국 TV에서 한국어로 인터뷰하는 시대가 아닌가.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한성인들이 세계를 누비며 비상하기를 기대한다. 청춘, 한계는 없다.

김은주(사회과학부 법&정책) 교수

■ 낙산에 올라

방송 시장의 발달과 시청자들의 영상 요구에 대한 증가는 채널의 다양화로 이어졌다. 과거에는 지상파 채널에만 시청자가 밀집해 있었지만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채널)이 등장하면서 시청률 변동 현상이 생겨났다. 지상파란 ‘KBS’, ‘MBC’, ‘SBS’, ‘EBS’와 같은 채널을 의미하며, 종편채널이란 ‘MBN’, ‘채널A’, ‘JTBC’, ‘TV조선’과 같이 드라마, 뉴스, 예능을 종합적으로 편성하는 채널을 말한다.

지상파는 각 방송사의 특색에 걸맞은 프로그램이 많다. 특히 잠재적 시청자가 많은 지상파는 꾸준히 같은 특색을 지닌 장수 프로그램을 방영한다. 그러나 채널이 다양해진 요즘 시청자들은 지상파 채널에 ‘새로움’을

콘텐츠의 바다 속에서

요구한다. 종편채널의 등장은 새롭고 신선한 콘텐츠가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최근에 TV조선에서 방영한 ‘미스터 트롯’을 통해 대한민국에 트로트 열풍이 생겨났다. 이는 방송계뿐만 아니라 문화 사업까지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종편 채널인 TV조선에서 제작한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시청률을 기록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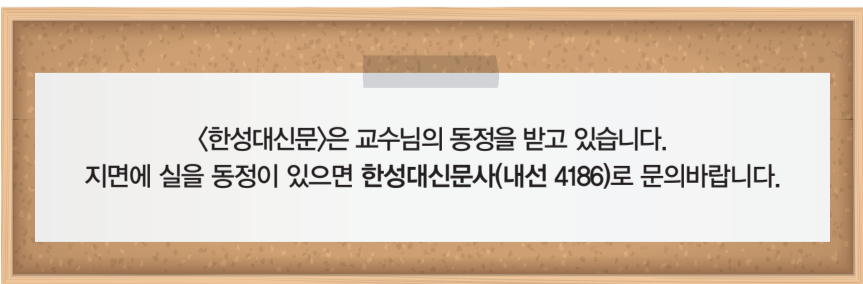
최근 지상파와 종편채널은 ‘뉴 플랫폼’으로 확대됐다. 스마트폰으로도 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시대가 왔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스마트폰으로 쉽게 ‘유튜브’, ‘OTT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각 방송사는 유튜브, SNS 등을 통해 방송사 자체 채널을 개설

하는 등 변화하고 있다. 연예인 또한 마찬가지다. 연예인들은 자체 채널을 개설해 영상을 업로드하고, 시청자와 소통한다. 이같은 변화는 약 10년 사이에 급격히 증가했다. 최근에는 유튜브를 통해 방송에 진출하는 사람도 생겨났다. 이들은 뉴 플랫폼의 발달로 인해 종편채널과 지상파로 나아가는 기회를 얻기도 했다. 앞으로의 방송 시장은 지상파와 종편채널의 경쟁 구도가 아닌, 뉴 플랫폼 등의 다양한 경쟁이 이어질 것이다. 지상파와 종편채널이라는 TV 시장에 빠져 허우적대지 않고, 뉴 플랫폼으로 시선을 돌려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힘써야 한다.

권수민 (인문2)

기자사령

임 정기자 이준혁(상상력 1) 임혜은(인문 2)



식욕억제제에 ‘혹’해 섭식장애로 ‘혹’간다

섭식장애 환자 수 늘어
식욕억제제 오남용 막아야
근본적 해결책은 인식 개선

최근 체중 감량을 목적으로 식욕억제제를 복용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는 추세다. 식욕억제제를 잘못 복용하면 섭식장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섭식장애는 섭식 및 식이 행동에 심각한 수준의 문제가 나타나는 정신장애의 일종이다. 보통 먹는 양을 극도로 제한하거나 폭식한 뒤 구토를 하는 등의 증상을 보인다. 김율리(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섭식장애는 저영양 혹은 영양 불균형을 초래하거나 뇌 기능을 저하시킨다. 궁극적으로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현저히 손상된다”라고 설명했다.

섭식장애를 앓는 환자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은 주목할 부분이다.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작년 10월 공개한 국정감사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5년에는 6873명이 섭식장애 질환으로 진료받은 데 이어 2019년에는 8,846명이 해당 질환으로 병원을 찾았다. 4년 만에 28.7%가 증가한 것이다. 그중 여성은 81.1%, 남성은 18.9%로 확인됐다. 특히, 모든 연령을 기준으로 20·30대 청년층이 35.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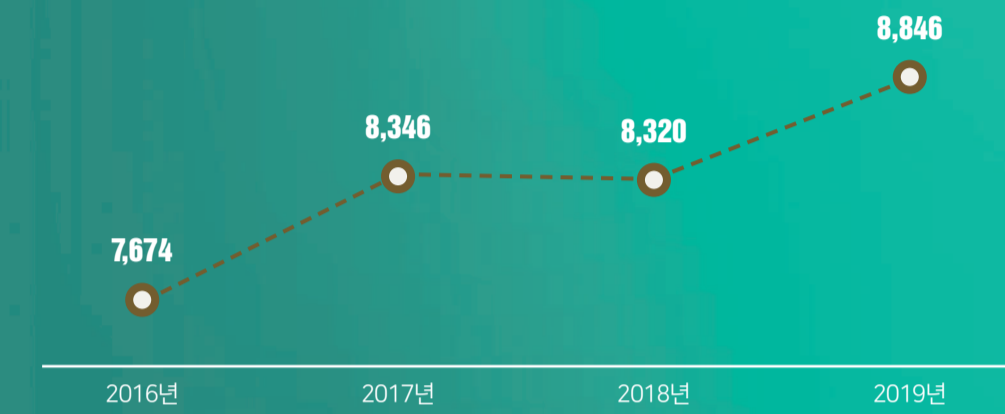
흔하게 알려진 섭식장애의 대표 증상은 거식증과 폭식증이다. 거식증으로 불리는 ‘신경성 식욕부진증’ 환자는 체중 증가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으로 음식 섭취량을 현저히 줄이거나 거부해 체중이 비정상적으로 감소된다. 폭식증 환자의 경우 단기간 많은 음식을 섭취하는 행동과 동시에 구토나 과도한 운동을 반복하는 행위를 보인다. 김 교수는 “거식증과 폭식증은 공통적으로 신체에 대한 불만족으로부터 발생하는데, 해당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는 신체상을 왜곡해 인지하고 체중과 체형에 대한 집착이 강하다. 여러 정신질환 중에서도 거식증은 매우 높은 사망률을 보이는 심각한 질병”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잘못된 인식으로부터 비롯된 사회 구조가 섭식장애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김윤아(나를 만나는 시간 심리상담센터) 센터장은 “섭식장애를 겪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낯선함을 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꼽을 수 있다. 섭식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과 심리 상담을 진행하면 타인에게 ‘낯선하다’, ‘살을 더 빼면 보기 좋을 것 같다’와 같은 외모 평가를 듣고 극심한 다이어트를 시작하게 된 경우가 절대다수임을 알 수 있다”고 전했다. 남의원 역시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섭식장애는 생물학적, 사회적·심리학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병한다. 낯선함이 이름다움의 기준으로 강하게 작용하고, 외모를 중시해 차별하는 사회구조적 문제도 중요한 원인”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우리 사회에는 외모지상주의가 깊게 뿌리 내린 상황이다. 지난 4월, 잡코리아와 알바몬에서 구직자 1,052명을 대상으로 얼굴도 하나의

최근 4년간 섭식장애 질환으로 진료 받은 인원

(단위 : 명)



*자료 출처 : 남인순 의원실

스펙임을 의미하는 ‘페이스프’ 관련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 중 95.6%가 ‘호감형 외모가 면접 결과에 영향을 준다’고 답했다. 때문에 ‘면접 준비 과정에서 호감형 외모에 부합하기 위해 다이어트를 하거나 시술을 고려했다’ 등의 의견이 이어졌다.

기존의 마른 몸을 추구하는 사회적 미(美)에서 벗어나려면 의류계의 변화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현명호(중앙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는 “마네킨의 키 혹은 허리는 비현실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현실에 부합하는 마네킨을 제작해 옷을 피팅하는 것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라고 전했다.

섭식장애의 또 다른 원인으로 식욕억제제 오남용도 지적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발표한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 안전사용기준에 따르면, 식욕억제제는 미용 목적으로 처방·사용될 수 없다.

신동해(이화여자대학교 약학과) 교수는 “식욕억제제 약물 사용 목적은 비만을 막아 성인병의 발병을 낮추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약물의 미용 목적 처방은 불가능하다”며 “미국 FDA에서 정신과 약물 계열을 식욕억제제로 승인한 이유는 비만으로 인해 사회적 비용이 증가한다는 점에 기인한다. 국내에서 비만으로 볼 수 없는 사람이 미용 목적으로 식욕억제제를 복용하는 점은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러나 국내에서 마약류 식욕억제제가 처방되는 사례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종성(국민의힘)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펜터민(phentermine) 성분의 식욕억제제 처방건수는 309만 7,254건으로 나타났다. 펜터민은 식욕억제제로 흔히 처방되는데 도파민의 분비를 유도해 다량 복용 시 메스암페타민(methamphetamine)과 같은

효과가 나타난다.

기자는 식욕억제제가 얼마나 무분별하게 처방되고 있는지 파악하고자 서울 소재 병원 5곳을 방문했다. 우리나라에서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을 수 있는 체질량지수(이하 BMI)**는 30kg/m² 이상이다. 하지만 BMI가 19.43kg/m²인 기자는 5곳의 모든 병원에서 별다른 어려움 없이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을 수 있었다. 심지어 4곳의 병원은 BMI 검사 없이 상담만을 거쳐 식욕억제제를 처방해줬다. 5곳 중 1곳만이 BMI 검사를 진행했지만, BMI가 30kg/m² 미만임을 확인됐음에도 식욕억제제 처방전을 제공했다.

중요한 점은 식욕억제제의 복용만으로도 심각한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의원실이 식약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작년에만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보고된 이상사례는 1,523건에 도달한다. 김 교수는 “식욕억제제를 4주 이상 복용할 경우 심각한 심장병, 의존성, 불안, 불면, 흥분상태, 조현병과 같은 정신 이상증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3개월 이상의 식욕억제제 투여는 폐동맥 고혈압의 위험을 약 23배 증가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식약처가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 안전사용기준을 마련해 비만치료제 중 항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에 대한 남용 및 의존 가능성을 환자가 알 수 있어야 한다고 의료기관에 권고하고 있지만, 자세한 설명 없이 처방되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방문했던 병원 5곳 중 남용 및 약물에 대한 의존 가능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준 병원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의사가 치료에 적절한 사용이라고 판단한다면 환자에게 알맞은 약을 처방할 수 있는 ‘처방권’ 때문에 사실상 제제가 불가능하다. 마약류 의약품도 의사가 처방할 수 있는 약의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정부의 관리·감독과 더불어 식욕억제제 오남용에 대한 신고 의무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신 교수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것처럼 마약류 약물의 관리 부실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정부는 식욕억제제 처방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섭식장애 환자의 증가와 식욕억제제 오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마른 몸을 지향하는 사회적 인식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평소 자주 접할 수 있는 다이어트 광고, 모델, 배우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사회적 미의 기준에 부합하고 싶은 욕구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센터장은 “섭식장애는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병이다. 대중매체나 다이어트 업체 등에서 사람들에게 낯선함을 강요하거나 다이어트 욕구를 부추기는 행위를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스암페타민 :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주는 중독성 높은 각성제
**체질량지수 : 자신의 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

조정은 기자 cje0406@naver.com

한혜정 기자 hhj716@hansung.ac.kr

“
다이어트 약 생산 업체나 처방 병원이
사회적인 책임감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



▲기자가 직접 받은 처방전과 식욕억제제